

도정을 밝히는
변화의 발걸음



도정을 밝히는
변화의 발걸음



도민을 웃게 하는 행복한 변화, 적극행정 새 길을 열다



변덕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뷰카(VUCA) 시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급격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도전'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과 시군 공직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성과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에도 힘썼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1년 동안 힘차게 뛰어온 공직자들의 값진 노력을 엮은 기록입니다. 적극행정 및 협업 경진대회에 선정된 20개의 우수사례와, 도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한 8개의 사회혁신 우수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쌓여 도민께 힘이 되는 적극행정이 보편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남도는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도민을 웃게 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적극행정(협업)·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제일주의 기치 아래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선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전라남도지사

김명록

CONTENTS

01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09

상반기

- 전국 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따리(公+家) 푼다! 10
- 면세유 긴급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용 절감! 14
-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경매 농산물 제값받기로 농어민 웃음 가득 18
- 지방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답을 찾다! 21
- 17년간 장기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 해결 실마리를 풀다! 26
- 버려진 폐교 활용을 통해, 쾌적한 근로자 정주여건을 조성하다 30
- 섬 제외지역 택배비 할증요금 제도 개선을 이끌다 34
- 여순사건 74년 통한의 세월 진상규명의 시작 37

하반기

- 전국 최초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42
- 전국 최초, 농산물 입고·선별·포장·출고·반품까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46
- 김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금 개발 50
- 전국 최초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청사진 제시로 농촌의 미래를 찾는다 55
- 강진청자, 스타벅스와 손잡고 전국으로 뻗어 나간다 58
- 전국 최초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 62
- 순천시, 카카오톡 한 통이면 '생활불편민원' 일사천리로 해결 66
- 공공앱을 담은 전국 최초 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70
- 1004섬 신안, 가스사용량으로 어르신 컨디션 알아요! 74

02

협업 우수사례 (3건)

79

- 전국 최초, 광역 道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80
- 클릭만으로 '청년 문화 복지카드'가 손 안에! 84
- 여수항(국동항) 내 소화시설 설치 87

03

혁신 우수사례 (8건)

91

- 우리동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청자골 1번가(家)' 92
- 꿈꾸는 펫병의 재탄생 96
- 너랑 나랑 함께 키우고 나누는 행복
(휴경지를 활용한 나눔·안전 돌봄) 99
- 우유팩을 모아 지구를 지킬 LAB(종이팩 정거장) 103
- 사계절 행[동하는] 복[지]!! 1004마을 중앙동 108
- 세상을 돕는 비행, 재능기부 드론봉사단 공익활동! 113
- 따스한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 117
- 어르신들과 아름다운 동행 '맛나GO~ 해피하GO~' 121



01.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 전국 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따리(公+家) 푼다!
- 면세유 긴급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용 절감!
-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경매 농산물 제값받기로 농어민 웃음 가득
- 지방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답을 찾다!
- 17년간 장기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 해결 실마리를 풀다!
- 버려진 폐교 활용을 통해, 쾌적한 근로자 정주여건을 조성하다
- 섬 제외지역 택배비 할증요금 제도 개선을 이끌다
- 여순사건 74년 통한의 세월 진상규명의 시작

하반기

- 전국 최초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 전국 최초, 농산물 입고·선별·포장·출고·반품까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 김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금 개발
- 전국 최초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청사진 제시로 농촌의 미래를 찾는다
- 강진청자, 스타벅스와 손잡고 전국으로 뻗어 나간다
- 전국 최초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
- 순천시, 카카오톡 한 통이면 '생활불편민원' 일사천리로 해결
- 공공 앱을 담은 전국 최초 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 1004점 신안, 가스사용량으로 어르신 컨디션 알아요!



전국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따리(公+家) 푼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지침이 전라남도의 노력으로 인해
개정되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완료(보건복지부, 2022.6.14.)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가정방문 산후서비스 추가로 이용 못해

출산 산모들의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30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일은 14일로 평균 산후조리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반면에 산모들은 출산 후 가정에서도 산후조리 서비스 15일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한 산후조리원 운영 지침상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와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 '16년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관련 안내(지침)에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안정적인
산후조리 제공

조리원 산후조리

출산가정 산후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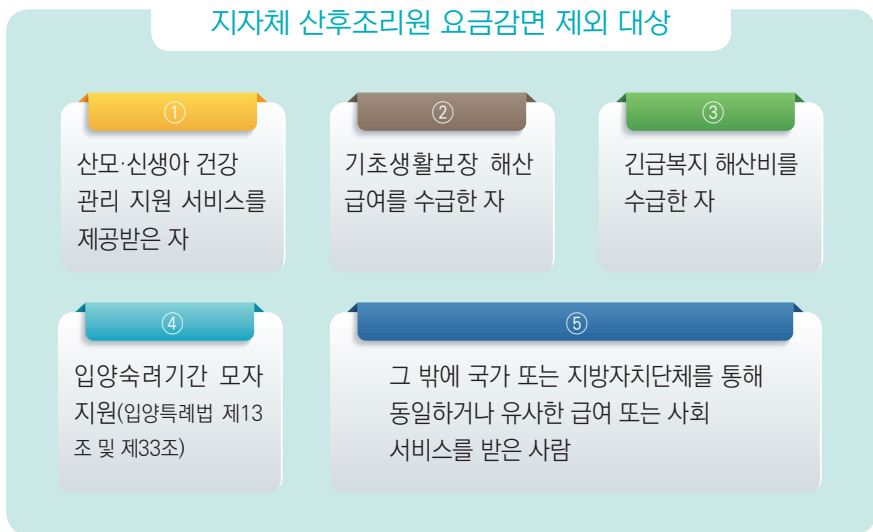
중복지원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해 발로 뛰고 컨설팅도 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개정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 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 하였다.

» 중복수혜를 위해 '16년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침 수정 필요



그 다음은 우리 도 감사관실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에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했다.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이 규정을 개정하는데 핵심 Key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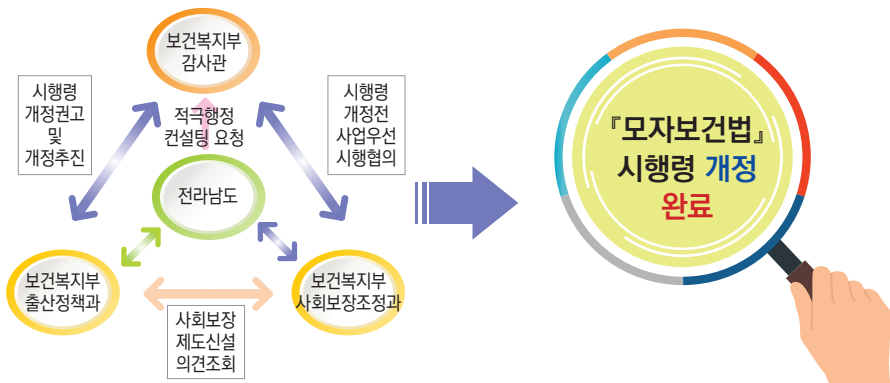
우리 도에서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22년 4월 전국 최초로 전남도만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결과 '22년 6월 규정이 개정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도의 발빠른 대응이 중앙부처를 움직이고 전국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남의 노력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되어 뿌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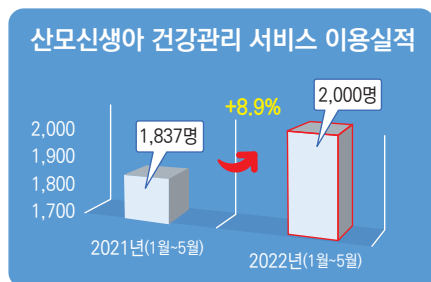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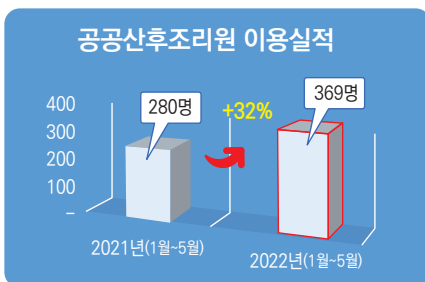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었고, 우리 전남도의 노력으로 인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점이 정말 뿌듯하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완료 : '22. 6. 14.('22. 6. 2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및 별표 2의2 단서 조항 삭제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이런 결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전년 대비 32% 상승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도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참여자 소감

▶ 팀장 **곽주민**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곽주민 (출산지원팀장/행정5급)	출산 시책 발굴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채호승 (주무관/사회복지6급)	출산 시책 추진



민원인 소감

▶ 출산 산모 **박소현**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

전라남도 산후조리 서비스가 있어 정말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다.
전라남도 화이팅!



면세유 긴급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용 절감!



러-우 전쟁에 따른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면세유 긴급 지원으로
힘이 되어준다.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인 경영부담 가중

러-우 전쟁 등으로 유류비가 '21년 연초 대비 '22년 6월 2배 이상(124%) 상승,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 경영 압박이 가중되었다.

» 농업용 면세유 가격 동향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 1.	1. 1.	3.21.(1차)	6.9.(2차)	11.16.(3차)	1. 1.(4차)
평 균	626원	912원	1,234원	1,405원	1,338원	1,245원
휘발유	590원	850원	1,227원	1,377원	1,168원	1,071원
경 유	647원	961원	1,314원	1,511원	1,449원	1,352원
등 유	642원	924원	1,162원	1,329원	1,398원	1,311원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농업인은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 농산물 가격경쟁 심화, 유류비 등 급등으로 농업인은 상대적 박탈감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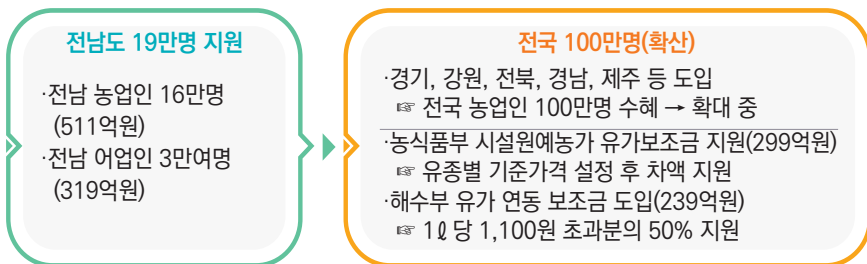
그래서 시작했다.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이러한 농민을 돕기 위해 농업용 기름값 인상에 관한 차액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법적근거도 찾아야 했고, 추진방식과 절차,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복잡한 체계로 공급되고 있었다. 사업 시행지침을 만들면서 지원 대상 누락 없이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읍면 뿐만 아니라, 농협 전남지역 본부와 지역조합, 일선 주유소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만 명의 농업인에게 511억 원을 지원하였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농업용 기름값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했다. 전북, 경남, 충남, 경기, 강원, 제주 등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 (따뜻한 동행) 농업인 1인당 최대 269만원 지원으로 농업인 시름 해소
 - »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 상승 차액을 지원하여 고통 분담
- ▶ (전국확산) 전남 농어업인(19만명) 지원 ▶ 전국 100만명
 - » 전라도에서 추진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전라도 위상 제고



- » 도정시책에 대해 좀처럼 좋은 평가를 내놓지 않는 전국농민회 총연맹(광주전남연맹)에서 “전남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환영” 성명서 발표



참여자 소감

▶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첫 번째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장 용감하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좋은 성과를 내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김재천 (팀 장/지방농업사무관)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오 희 (주무관/지방행정주사보)



수혜자소감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러-우 전쟁까지 더해져 유류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농사 짓기가 정말 막막했다. 그러던 중 유류비 지원사업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잘 헤아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전라남도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경매 농산물 제값받기로 농어민 웃음 가득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변경하여 중간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하다.

* 2022년 6월 기준 실적 : 거래물량 815톤, 거래액 1,240백만원)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온라인 구매 폭발적 증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슈퍼,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을 직접
구매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그러나 과도한 중간 유통비용과 농산물 품질 변화,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농·어민이 부담해야 했다.



aT-전라남도 업무협약



온라인 경매 추진 절차

전국 농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 판로 확대, 협약 체결 기대

농·어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경매’사업을 알게 되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출하업체 참여 저조와 품목 발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우리 도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가 필요했다.

먼저 aT와 전라남도가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남도장터 입점 업체, RPC, APC, 농협 등 산지 출하업체를 발굴하고 1:1 안내와 상담, 현장실사·컨설팅을 실시하여 온라인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온라인 경매 홍보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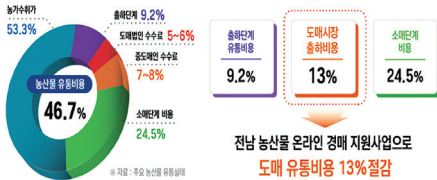
온라인 경매 출하업체 현장 실사 및 컨설팅

또한 경매 상품에 대한 구매업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산지의 생생한 영상을 제공하였고, 전남 농산물 온라인 경매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경매 수수료를 지원하여 온라인 경매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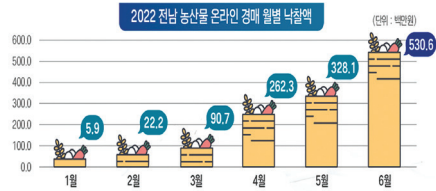
유통단계 축소로 출하비용 절감, 제값받기 가능

그 결과 유통단계 축소로 참여업체는 도매시장 출하비용이 최대 13% 절감되었고, 낙찰 기준가격 제시로 전남 농·축·수산물의 제값받기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손상이 없고, 낙찰 받은 농산물을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받을 수 있어 상품의 신선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신선한 전남 농·축·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도매시장) 농산물 유통비용 및 농가 수취가 현황



2022 전남 농산물 온라인 경매 월별 낙찰액



미담사례

○○농산(깻마늘/출하업체) | 온라인 경매 참여를 통해 확보된 거래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영농(양파/출하업체) 양파 가격이 떨어져 판로가 걱정됐는데 최소한의 원가라도 보전받고 판매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식자재(구매업체) | 도매시장의 수수료·물류비가 들지 않아 구매 비용이 10~20%줄었다. 또한 경매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어서 안심이 되었다.



참여자 소감



▶ 유통기획 팀장 성 미 숙

최근 잦은 기후변화 및 물가상승 등 힘든 여건속에서도 정성스레 키워낸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어민의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성미숙 (팀장/지방행정사무관)	업무 총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이정의 (주무관/지방농업서기보)	업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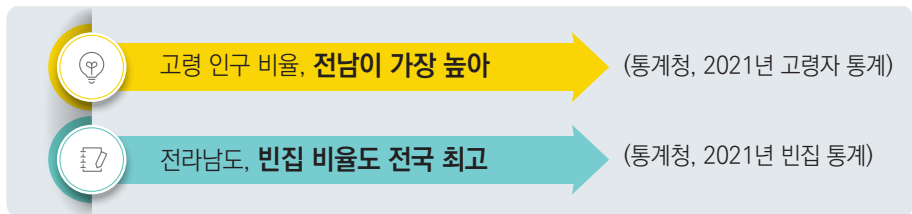


지방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답을 찾다



넓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의 주거·창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다.

넓고 방치된 빈집, 사회문제 야기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빈집 증가와 관리 부실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범죄,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다시 주거환경 저하와 인구이탈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빈집 문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빈집을 사유재산으로만 보는 인식 때문에 행정의 소극적 개입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넓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의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인구감소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빈집 문제 해결과 청년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쉽지 않는 상황

빈집 소유자의 상당수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방치 기간이 긴 빈집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소유 구조가 복잡하며 불법 건축물이 많아 활용 가능한 빈집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가치를 고려해 빈집을 매매할 의사가 없고 투자도 꺼리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측면의 어려움도 있었다.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과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창업과 정착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단기간에 폐업과 인구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접근성,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녹록치 않았다.

고심 끝에 영농기술 지원 중심의 귀농 정책에서 청년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일·커뮤니티 종합 지원 귀촌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 마련

먼저 청년 워크숍 등 사업 기획단계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다소 번거로운 일이지만 빈집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과정에서도 청년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간과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애착심을 더 갖게 만들었다.

또 청년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원에 나섰고,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3년여 기간 동안 행정과 청년 사이의 소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갔다.

청년들에게 공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촘촘히 만들었다. 단편적인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공간만들기(리모델링) - 사람키우기(창업교육) - 공간과 사람 잇기(공간에 맞는 사람 매칭) - 사람과 사람 잇기(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종합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공간만들기(빈집 리모델링)



사람키우기(창업교육)



사람과 사람잇기(커뮤니티프로그램)



사람과 공간잇기(빈집 청년 입주)

발로 뛰는 현장 밀착 행정과 협업, 그리고 적극적인 이해 조정 노력

실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가호호 발로 뛰는 현장조사가 필요했다. 빈집 소유주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증금 무료, 반값 임대료, 리모델링 기간 임대료 무료 등의 협조를 얻어냈다. 강진군-건물주-청년 임차인 등 서로 간의 이해조정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또한 행정 부서 간 협업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빈집 리모델링,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상품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 로컬’을 연계해 서울 청년과 강진의 관계 맺기와 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갔다.

인구소멸과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 빈집 활용 사업 확대

넓은 빈집이 청년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청년 주택 3호, 청년점포 5호, 청년 복합공간 1호, 청년마을만들기 거점공간 1호를 조성하였다. 비어있던 공간이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부까지 활성화되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올해부터는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해 빈집 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자원 활용 청년 창업 활성화

쌀귀리, 화훼, 차, 청자, 문화예술 등 강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졌고, 9팀이 청년창업으로 이어졌다. 또 청년농부, 창작자, 마케터 등 23명의 청년이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해 청년 제품을 공동으로 홍보·마케팅하는 로컬편집숍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협동조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과 함께 청년들의 문화와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도해 로컬을 살리는 청년마을 만들기로 확산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강진에 이주·정착한 청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지역과의 관계맺기를 이어가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확대와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추진단체로 이들 청년단체가 선정되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주도해서 또 다른 청년들의 강진 유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등 지역쇠퇴에 대응하는 적극 행정의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참여자 소감

▶ 강진군 건설과 과장 위길복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자연 인구감소 보다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주거환경, 일자리, 교육문제 등 적극행정으로 사회적 유출요인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장미

넓고 방치된 빈집에 청년들이 정착하기까지는 적극행정 뿐만 아니라 청년을 환대하는 주민과 지역의 가능성을 믿어준 청년 등 지역공동체가 합심한 결과이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강진군	건설과	위길복 (건설과 과장)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미 (건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17년간 장기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 해결 실마리를 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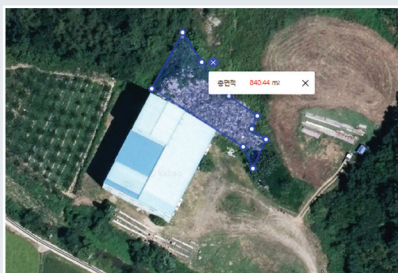
변호사 자문, 환경부 폐기물처리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17년간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의무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현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의무 적용 어려워~

최초(2005년)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하고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의 부도 이후 잦은
소유권 변경(4회)과 관련 법 개정으로 현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폐기물 처리의무 적용이
어려웠다.

※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예산 약 4억원 소요



위성에서 본 방치폐기물



방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1200톤)

전문가에게 수차례 자문, 소유자 설득 끝에 폐기물 논란 종지부

대법원 판결문('21. 7. 15)에 따라 현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조치명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군 법률자문번호사(3개소), 한국환경공단(3개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하고, 환경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1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자문위원들(변호사, 교수, 환경부 등)과 토론 후, 현 소유자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현 토지소유자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현 토지소유자가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2. 12월까지 방치폐기를 처리 완료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장기간(17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의무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장기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최초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2022년까지 약 17년간 수차례 담당자 및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방치폐기물은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풀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 관련법이 변경되어 처리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급기야 대법원 판례에서조차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현 토지소유자에게 처리명령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현 토지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및 환경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문을 두드리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현 토지소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약속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방치폐기물 처리의무가 없다고 버티던 현 토지 소유자에게 환경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근거로 '22. 7. 5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다시 하였으며, 마침내 수차례 설득과 안내를 통해 현토지소유자에게서 '22. 12월 1,200톤 전량을 위탁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대법원 판례처럼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은 현 토지소유자에게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지 않고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다면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현 토지소유자에게 처리의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하여 현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대집행 비용 약 4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서

폐기물처리명령서방치폐기물 자체 조치계획서



참여자 소감

▶ 기후환경과 팀장 이유미

17년간 수차례의 법률 개정과 담당자들이 자주 변경된 상태에서 업무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장기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냄으로써 환경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 기후환경과 정은경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법률자문 등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방법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뿌듯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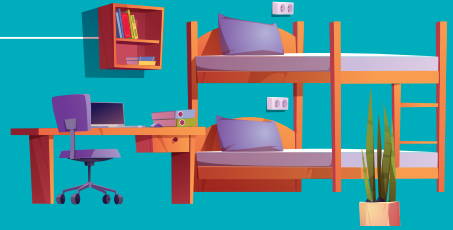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보성군	기후환경과	이유미 (팀장/환경6)	업무 총괄 및 현 토지소유자 설득
보성군	기후환경과	정은경 (주무관/환경연구사)	자문서 작성 및 의뢰, 처리명령 처분 등





버려진 폐교 활용을 통해, 쾌적한 근로자 정주여건을 조성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버려진
폐교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으로 인구 유입과
농촌인력 수급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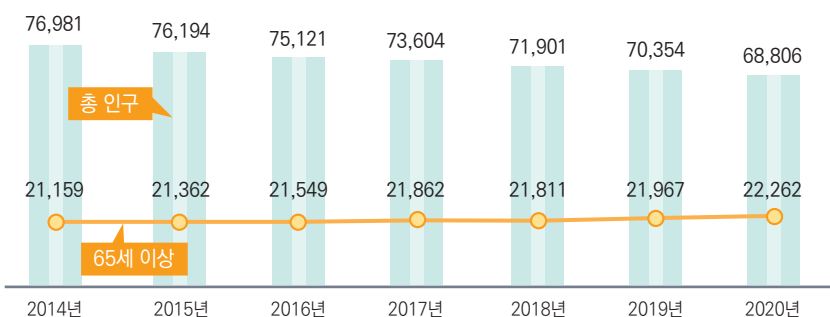


농가 인구수 10년간 지속 감소, 고령화 심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와 농가인구 감소세에 따른 위기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인구 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했다.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은 46.8%로 나타났다.

» 해남군 연도별 인구 현황



이로 인해 농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은 기존의 폐교부지를 활용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인구 유입과 농촌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외부인력 공급에 한계를 느낀다.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더욱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농번기철 일손 부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력을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에 나섰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번기철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 홈페이지 및 도농인력중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구인광고에도 나서 보았지만,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족한 농업인력을 고용하고자 해외로 눈길을 돌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필리핀 코르도바(*22.3.15.)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투델라, 알칸타라, 딸락주, 산마테오, 지엠에이, 아마데오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인력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숙소점검 등을 통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로부터 총 134명(전라남도 총 706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전원 배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형 일자리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자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다.

우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지만, 부족한 숙소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장(군수, 부군수)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19차례 방문하여 숙소 건립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전남형 일자리 숙소 건립을 위한 선제적 건의



농업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2.3.15.)



계절근로자 입국('22.5.1.)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농촌인력기반 확충의 교두보 마련

그간 해남은 고구마를 비롯해 고추, 배추 등 작목을 중심으로 봄, 가을 농번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지리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해 외지 인력이 오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체류하는 근로자의 경우 농가 근처 숙박시설이 적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리 군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점에 기숙사를 설립하고자 최적의 사업부지를 찾던 중, 폐교되어 마을의 흉물이 되어버린 황산 옥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내외국인 근로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22. 1.)되어 총 사업비 47억(국비 12, 군비 35)을 2년 동안 투자,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 일원에 1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 건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3년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농가 부담은 줄이고 해남군의 고질적인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 조감도(외부)



기숙사 조감도(내부)

참여자 소감



▶ 농촌인력팀 팀장 임 준 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 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인력팀 주무관 임 호 성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구비하지 못한 고용주(농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이 가능해짐으로써 농번기 인력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해남군	농정과	임준연(행정6급)	업무 총괄
해남군	농정과	임호성(농업7급)	업무 협업



섬 제외지역 택배비 할증요금제도 개선을 이끈다

섬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다.



섬 지역이 아닌 지역의 택배 할증료 개선 필요성 대두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 섬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군외면 일부 행정리에 섬 지역 기준 택배 할증료를 부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택배 이용시 섬이 아닌 지역에 할증료를 부과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지역주민 의견 청취, 현황 파악 우선 실시

그래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용, 부당한 요금 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택배비 요금 부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도서생활 물류증진 방안 제도 개선” 사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택배사 및 온라인홈쇼핑사에 섬 제외지역 택배비 할증요금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 ▶ '22. 2. : 군외면 중리 마을 주민 및 이장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
- ▶ '22. 3. : 규제개선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연계 추진
 - 해당 규제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완도군 지역의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지역 현황 조사 실시
- ▶ '22. 3. : 완도군 지역 내 군외, 신지, 고금, 약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 '22. 4. : 택배비 현황 조사 결과 제출 및 제도개선 건의(국민권익위원회)
 - 군외면 당인리, 영풍리, 황진리, 불목리, 원동리 일부지역에서 섬 지역 할증요금 부과 현황 파악
- ▶ '22. 5. 23.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포함 및 제도개선 기대
- ▶ '22. 6. 14.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대응 추진방안 제출(국민권익위)
- ▶ '22. 8. 26. : 섬 제외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감액 요청(홈쇼핑사)



규제개선 의견청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권익위 도서지역 택배요금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해결방안 마련

그리고 기존 부당한 택배비 할증제도 개선을 위하여 규제개선 차원에서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앙부처 규제해소 건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침내 끈질긴 건의 끝에 섬 지역으로 잘못 분류되어 부당하게 택배비 할증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건의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반영되어, 해당 부서(국도교통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택배요금 할증료 개선 관련 국토부 및 공정위 법령 개정안 권고

일반 사기업인 택배사나 온라인쇼핑몰사에 대해서 택배요금 개선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 해당 섬 제외지역에 대한 부당한 택배요금을 개선토록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개정을 권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추가 배송비를 합리적으로 책정 및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권고하여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섬 제외지역 할증료 부과방지 요청

연륙교가 건설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지역임에도 과거의 주소체계를 적용하여 섬 할증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쇼핑몰 회사 등에 공문으로 알렸다. 단순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주소체계 반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할증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참여자 소감



▶ 기획예산실 이재선

나의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완도군	기획예산실	이재선(행정8급)	업무 총괄



여순사건 74년 통한의 세월 진상규명의 시작, 여순사건 피해신고 및 특별법 후속대책 추진

‘찾아가는 one-stop 피해신고’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시작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74년의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80~90세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속한 피해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연좌제 등의 이유로 피해 신고 기피

희생자와 유족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 필요

그러나 연좌제 등의 이유로 피해신고를 기피하고, 사건 발생 이후 74년이 지나 피해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신고서류 작성, 공적자료 확인 등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시작에 힘을 더하고, 국가의 합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여수는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 접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이후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후속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유족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국가의 약속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을 써야했던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다.

단순히 여수나 순천, 전남 동부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증언 기록, 기초자료 확보 등이 필요했다.

‘기다리는 피해신고’에서 ‘찾아가는 피해신고’로 발상의 전환

사실조사원을 고용하여 권역별 4개팀을 구성하였고, 피해 사건, 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마을별로 현장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당일에 읍면동 집중 신고일을 지정·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피해신고 접수,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신고 접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수막, 전광판, 버스단말기, 향우회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신고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대상자 중 고령 등의 사유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연좌제 등 피해의식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그분들이 빠짐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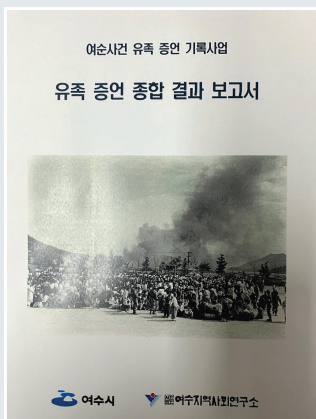
또한 여순사건 피해신고 읍면동 책임공무원 그룹스터디를 운영하여 원활한 신고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유족 증언 기록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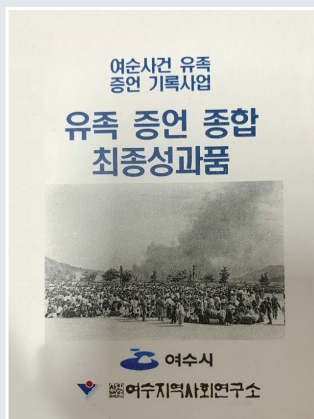
여순사건 발발 74년이 지나, 피해자와 유족 고령으로 인한 유족 사망에 대비 관련기록을 보존하여 국가차원 진상조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면담 69건, 증언녹취 51건, 구술영상기록 3,570건 등 증언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유족 증언 기록사업을 추진했다.

유족 증언 기록집을 피해신고 사실조사 공적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사례별 증언 내용은 유족 동의를 얻어 피해신고 홍보에 활용했다.



유족증언 종합 결과보고서(책자)



유족 증언 최종성과품(HDD)

여순사건 여수 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문헌, 사진, 영상 등 기록물을 조사·수집·정리하고, 기록물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여순사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사건으로 보는 여수·순천 10·19 사건, 미디어 자료, 문헌자료, 역사 유적지 소개, 추모 공간마련 등 여순사건에 대한 사료보관, 여순사건 피해신고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높였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협업을 통한 피해신고 접수율 제고

지역사회연구소가 제작한 피해자 실태자료집을 토대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읍면동 및 도서지역 방문시 지역 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동행하여 피해신고 미접수자를 파악하고 1:1로 안내했다.

24년 전 실제 피해자 실태자료집을 제작한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



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피해신고 설명회



도서지역(거문도) 피해신고 안내



참여자 소감

▶ 여순사건지원팀 팀장 김 두 길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감격적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찾아가는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만난 유가족의 눈물과 애환이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동력이 된 것 같다. 큰 상을 받아 기쁘다.

▶ 여순사건지원팀 이 승 민

희생자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유족들도 80~90대 고령인 만큼 당시 업무가 힘들어도 돌아보니 참 보람됐던 것 같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여수시	총무과	김두길 (여순사건지원팀장/ 행정6급)	업무 총괄
여수시	총무과	이승민 (차장/ 행정6급)	업무 협업

기억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생활안전 수호천사로 일상 속 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주거공간 화재 비율 최고,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분야 출동 지속 증가

도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중 주거 공간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소방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분야 출동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구조활동 중 54.6%)하고 있어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35.53%)이 높은 도내 피난약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전체인구 1,856,685명 / 65세 이상 457,481명 / **25.2%(초 고령화 14곳)**



SBS뉴스



주택화재 예방 결의대회



CMB뉴스(전남방송)

2개 시군 시범사업 후 22개 시군으로 확대, 24만 가구 모니터링

장흥군과 강진군 시범 운영(’21.5~7) 이후 도내 22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 피난약자 24만여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안전 진단 등 종합안전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및 기초건강 체크 등 건강 모니터링을 하였다.

※ 수해자의 호응도 매우 높음 → 확대필요성 대두 → 도의회 설명 등 추진

그리고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현장접수를 받아 마을 단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복지 기동대,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업으로 더 다양하고 폭 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운영 협의(복지기동대 등)



119생활안전순찰대 발대



협업(복지기동대, 의용소방대)

안전점검 15,941건, 안전조치 184,808건, 방문가구 화재건수 zero

그리고 15,941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84,808건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18,821명에게 생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방문 가구 중 화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최초 주거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남 이미지를 실현하였고 생활공간 안전점검 및 방치된 잠재적 위험요인 제거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도민 알리를 위한 활동사례집을 400권 발간하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사례집: 주요 관공서 비치 / 사진전시회: 순천만국가정원 내

현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도민의 진심이 담긴 손 편지 및 감사의 글 284건이 올라와 있다.



기초건강체크



활동사진 사례집



위험요인 제거





참여자 소감

▶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정강욱

화재, 구조·구급 등 전통적인 안전서비스 외 주거공간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에 주는 119생활 안전순찰대의 활동은 도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잠재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대책 일환으로 전국 소방의 모범 사례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생활안전팀장 김유섭

우리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및 산간지역의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119 생활안전순찰대의 손길은 따뜻한 보살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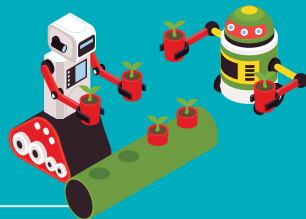
▶ 전라남도 구조구급과 생활안전담당자 최강준

전남소방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도민에게 일상 속 반가운 수호천사가 될 것이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정 정강욱	업무 총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령 김유섭	업무 추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경 최강준	업무담당자



전국 최초, 농산물 입고·선별·포장· 출고·반품까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전국 최초로 첨단 로봇을 기반으로 한 물류·유통 자동화 기술을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도입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다.

* 입고·관리·선별·포장·출고·반품 등 전 과정을 자동화 처리(ex. 아마존 물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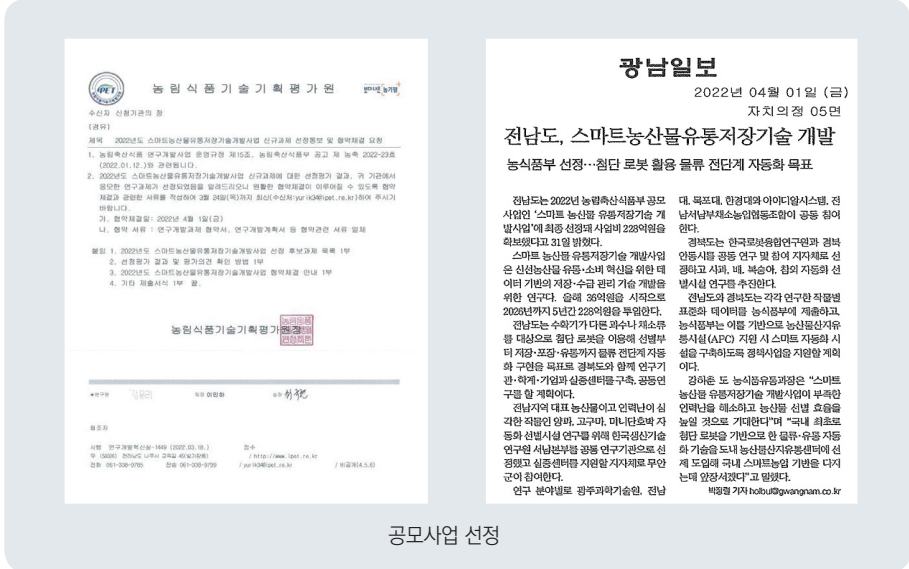
농산물 품질저하, 수급불안, 노동력 부족 등 유통문제 해결 앞장

우리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후 단순 저장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 수급 조절에 필요한 역할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상품 유지력 등이 부족한 상황
이었다.

이에 우리 도는 농산물 품질저하, 고질적 수급 불안, 노동력 부족 등 농산물 물류·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입고·선별·포장·출고·반품까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처리하는 '신선 농산물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 구축 및 핵심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노후화된 APC 작업현장(양파 선별과정/전남서남부채소농협)



공모사업 선정

국가기관, 연구소,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

우리 도가 주도하여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공모 연구 과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정부 연구과제 공모계획도 사전에 파악, 공모 필수 조건인 선행연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국공립연구소와의 컨소시엄 구성 및 2개 지역 지자체 이상의 매칭 조건을 미리 충족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

- ▶ 전남(한국생산기술연구원)-경북(한국로봇연구원)의 국내 농업기계분야 최고 연구기관과 연구계획 발표 전 파트너 관계 先 구성
- ▶ GIST 등 국내 대학, 아이디어알시스템 등 농업 디지털분야 선도기업 다수 참여

또한, 연구수행을 위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도내 APC 현장 조사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참여 지자체(무안군) 확정과 지역에 맞는 연구대상 품목(양파, 고구마, 미니단호박)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참여연구기관간 업무협의 및 현장견학

국내 최초 스마트 자동화 APC모델 구축사업 확정

국내 최초 스마트 자동화 APC 모델 구축 사업 확정으로 도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작업 환경 개선 및 효율성 증대로 농산물 물류·유통의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 하였다.

※ 연구목표: 가동률 30% ↑, 유통비용 20% ↓, 운영비용 30% ↓, 출하처 확보 2건 이상

도내 APC 효율화로 품질 좋은 농산물 가공·포장을 통해 대기업 등의 수요층에 맞게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였다.

우리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다.



대기업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MOU체결(풀무원식품)



폴필먼트 기술개발 모식도 및 구축모형

▶ 농식품유통과 팀장 김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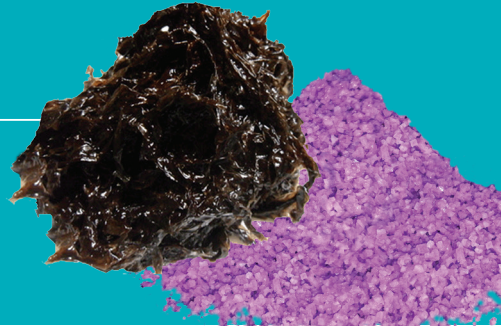
공모사업 참여에서 선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분야 4차산업을 전남도가 주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향후 '26년까지 추진되는 연구사업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김지연(팀장)	업무 총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이은주(행정6급)	업무 협업



김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금 개발

매년 가공 김의 수출은 활성화되어 증가하고 있지만
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김 생산액은 감소하고 있어
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김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금을 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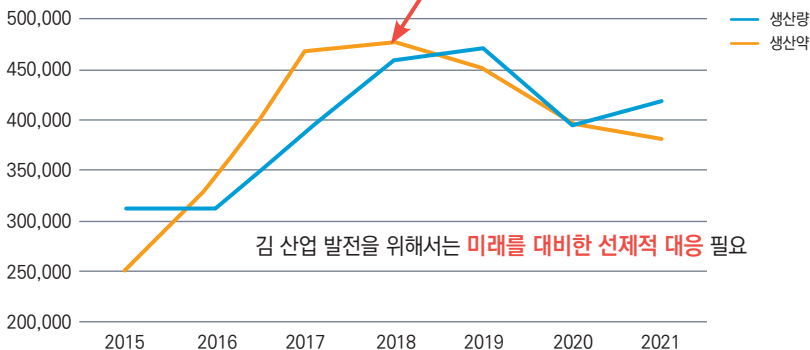
전남은 국내 물김의 80% 차지, 2018년부터 생산 감소 ⇒ 미래 먹거리 개발 필요

전남은 국내 물김의 8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마른김, 조미김, 구운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을 46만톤(4,776억원) 생산하고 있다.

매년 가공 김은 수산물 수출 품목 1위 였지만 김 생산 어민의 소득 지표인 김 생산액은
201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연도별 물김 생산량과 생산액

(단위 : 톤/백만원)



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자료 : 전남도 수산자원과

전남 김 산업의 지속발전과 생산 어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였다.

제품 개발을 위해 머리 맞대, 안전성 검사, '김색소' 정의 개정 건의 등

김 산업의 미래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김 색소단백질 추출물 연구 및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추진하였다.

김 천연색소 단백질 추출물은 화장품 용도의 개발은 다수 있었으나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조사자료 후 토의



세척 후 물김



김의 천연색소를 추출하는 과정



김 추출물을 얻기 위한 여과 과정

그래서 천연색소가 갖고 있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얻어진 추출물에 대한 안정성(열, 햇빛, 알코올 함량 등)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온도에 대한 안정성 연구



김 색소추출물



김 추출물 첨가액(왼쪽부터 10%, 20%, 30%)의 멸균 후 사진

결과 → 완전탈색 ×

김색소의 고압멸균시 완전탈색



김 색소추출물



대조군(왼쪽)에 비해 색소 단백질의 응집 (오른쪽)이 관찰됨

결과 → 색소단백질 응집 ×

100°C에서도 색소단백질의 응집

온도에 대한 안정성 연구



0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50°C에서 가온 시간에 따른 김 추출물의 색상 변화

결과 → 가온시간에 따른 탈색 미미 ○

50°C이하에서는 천연색소 영향 미미

광(햇빛)이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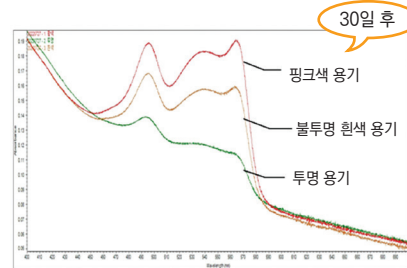


10% 20% 30% 40% 50% 60% 70% 80% 90% 비교구

결과 → 일주일 후 알코올 함량에 따라 침전 발생

알코올 함량 20%이상에서는 탈색 및 응집

담는 용기의 색이 색소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담는 용기는 색소의 색과 유사용기에



색소추출물의 미생물은 알코올 함량 10%이상에서는 큰 문제 없음

그 이후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연구에 착수하였고 김색소를 산업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식품첨가물공전 ‘김색소’ 정의를 개정토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김 천연색소를 활용한 제품 중 소금을 특허출원하게 되었다.



김 천연색소를 이용한 소금



김 천연색소를 이용한 술

세계로 뚫어주는 자랑스러운 전남농특산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청(청가름기문화과장)
(경유)
재촉 식품첨가물공전 중 '김색소'의 일부 개정 건의(안)

1. 귀 기관의 투명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첨가물 중 '김색소'가 통재된 1999년 당시와 달리 김의 계통분류체계나 주 양식 품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3. 세계적으로 김이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김초출물인 '김색소'의 '정의'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발임과 같이 건의합니다.

발임 식품첨가물 중 '김색소'의 '정의' 일부 개정 건의(안) 1부. 끝.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국장

주요담당관	주요담당관	주요담당관	주요담당관	주요담당관	주요담당관
사	서	서	서	서	서
장	장	장	장	장	장

주 88024 전라남도 보건지 관공청 관공청 관공청 7 / http://www.jnhe.go.kr
전화번호 061-700-1881 팩스번호 061-240-8280 / ut340@jnhe.go.kr / 다목적 용기
2022-2023 전라남도 농특산물

식약처에 식품첨가물공전 개정 건의

○ 김색소 정의 중 원재료인 김의 범위 현실화 및 추출방법 확대 건의

구분	현행	수정(안)
정의	이 품목은 홍조식물 보라갈래과 김 (Porphyra tenera KJELLM.)의 엽채물 또는 익산성수용액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주색소는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이다. 다만, 색가 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회색제 및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이 품목은 홍조식물 김파래과 김 속 (Genus Porphyra)의 엽채물 을, 익산성수용액, 합수당, 합수엑탄 등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주색소는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이다. 다만, 색가 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회색제 및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김색소'의 정의 부분 개정 건의 내용

발급번호 : 3-5-2023-000797909

출원 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APPLICATION

출원인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발명자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성명	영호철	주민번호	651222-1*****

출원번호: 2022-0157185
출원일자: 2022-01-11

발명(고안)의 명칭, 실시방법, 기능효과, 장점(서비스업)을 구분

발명(고안)의 명칭, 실시방법, 기능효과, 장점(서비스업)을 구분

발명(고안)의 명칭, 실시방법, 기능효과, 장점(서비스업)을 구분

발명(고안)의 명칭, 실시방법, 기능효과, 장점(서비스업)을 구분

김 천연색소 추출방법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소금의 제조방법 특허 출원

특허출원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산업화 진행

식품첨가물 ‘김색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김 천연색소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허 출원을 통한 전남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개발된 제품은 신안 퍼플섬(반월도)에 맞는 인기 상품으로 산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자 소감

▶ 약품화학과 팀장 양 호 철

어려운 과제임에도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으로 김색소 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개발된 제품이 인기상품으로 대박나길 바란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양호철(과장/연구관)	업무 총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	김양기(과장/연구관)	업무 협업
보건환경연구원	약취관리과	이정일(과장/연구사)	업무 협업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	박송인(연구사)	업무 협업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서옥현(연구사)	업무 협업



전국 최초 전남 유기농생태마을 청사진 제시로 농촌의 미래를 찾는다

유기농 생태마을을 활용하여 삶터, 쉼터, 일터로써
주민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다.

* 유기농 생태마을 : '21년말) 34개소 → '22년 11월말) 4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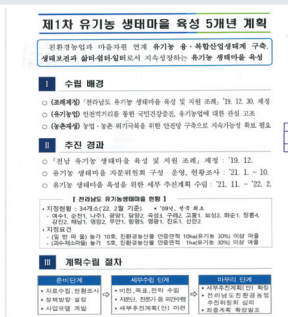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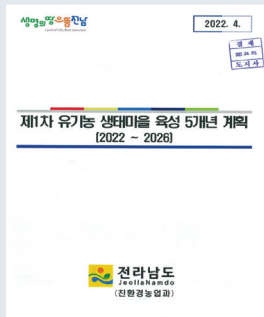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 필요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고 지역특색을 살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을 100개소로 확대·육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2022년 4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유기농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22.4.5. 지사님 결재)

5개년 계획 책자 제작

2026년까지 생태마을 100개소 확대 지정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생태마을 100개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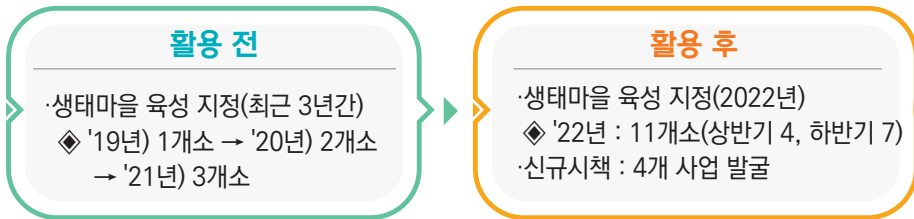
지역 특색을 살리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체험·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유기농 마을 확산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주민 관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유기농생태마을 교육,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시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업무 평가 가점 부여, 예산 증액(20백만→40백만원)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관심 저조로 유기농생태마을 지정 시 '23년 농정업무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사업비를 개소당 20백만원에서 40백만원으로 증액하였다.



2021년말 유기농생태마을이 34개소였는데 2022년 11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 연도별 신규지정 현황 : '19년)1개소 → '20년)2개소 → '21년)3개소 → '22년)11개소

그리고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도비 63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 사무장 지원(182백만원), 브랜드 개발(20백만원), 활성화 사업(400백만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30백만원)

또한,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개소(1,950백만원)가 선정되어 유기농 생태마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3개소, 사업비 1,950백만원(5년간)



고구마 수확



유채꽃 축제



신안 내양마을



미담사례

[신안군 지도읍 내양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내양마을 유기농 생태마을은 친환경유채(160ha)를 파종, 유채 축제를 개최해 연간 1,000여명의 관광객 유치했으며, 고구마 수확, 메주 만들기 체험행사와 함께 유기농쌀 계약재배로 연간 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참여자 소감



▶ 친환경정책팀장 최 광 일

유기농생태마을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창출로 연계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도농공동체를 실현하는 성공모델로 만들고 싶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최광일(팀장/지방농업사무관)	업무 총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김민서(주무관/지방행정주사)	업무 담당



강진청자, 스타벅스와 손잡고 전국으로 뻗어 나간다

강진군의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과 마케팅, 홍보방안을 모색하고자 스타벅스코리아에 협업하여 2년 만에 강진청자 상품(2종 8,446점)을 출시하여 전량 판매하다.



청자 생산과 소비 감소, 형태와 재료 다변화 필요

현재 강진에 40여 개 청자 도예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갈수록 청자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현대생활에서 식음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그릇의 재료와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도자기 산업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원료와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으나 개별 도예업체들의 운영상태로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파손 부담이 큰 도자기라는 점이 현지 구매 위주의 판매방식을 고수하게 했고, 도예업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도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청자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는 새로운 마케팅 필요

청자는 고려시대 골동품 또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감상하거나 실생활에 있어서도 장식용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했다.

그래서 강진군(고려청자박물관)은 새로운 마케팅 협력업체로 스타벅스코리아를 선정하고, 2020년 12월부터 관계자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2021년 8월 스타벅스코리아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청자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담은 상품 출시 필요성을 제시하고, 고려청자 상품개발이 문화유산에 기여하는 역할과 의미를 인식시켰다.

그리고 이화여대, 충북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자문을 받아 고려시대 왕실의 차문화에서 모티브를 차용하여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실제 광주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자문을 받아 상품기획, 아이템 발굴, 디자인 방향, 스토리텔링 기반 디자인, 현대적 패턴을 적용한 응용상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다.

2021년 8월에 2022년 광복절 기념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짓고, 10월에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강진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도예업체 현황을 파악한 후 2022년 1월 백년 소공인으로 지정받은 도예업체 3개소를 선정하였다.



동시에 강진군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고려청자 관련 이미지, 도면 등 1차 자료를 적극 지원했고, 스타벅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3차에 걸쳐 시제품을 개발했다.

강진군은 스타벅스코리아 의견과 이를 수행하는 도예 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상품 제작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청자 유약의 두께와 색이 균일성을 갖도록 철저한 상품 검수를 실시했다. 총 8,446점에 대해 제작업체(1차), 박물관(2차), 포장(3차)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검수로 상품의 품질을 담보하였다.

청자티컵, 청자트레이 등 모든 상품 바닥면에 강진군 생산임을 표기하는 문구를 넣게 함으로써 강진군 홍보에도 주력하였다.

지역소득 창출 기여, 전국 백화점으로 연결

2022년 7월 25일까지 강진 청자상품 8,446점을 납품하고, 8월 15일에 전국 1,717개 오프라인 직영매장과 스타벅스 앱에서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품이 전량 판매되었고,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으며, 상품제작에 참여한 3개 도예업체는 총 133백만원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

스타벅스코리아와의 협업은 강진이 갖고있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방법이었으며, 단시간에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강진군의 청자산업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기에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도예 업체들의 인지도가 상승하여 수도권 백화점 판매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담사례

상품출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자재단, 경북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스타벅스코리아와의 협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는 등 민간과의 좋은 협업사례가 되었다.



참여자 소감



▶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팀 조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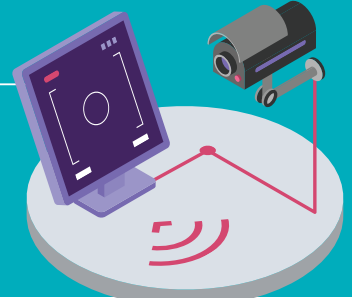
앞으로도 대기업의 전국적 유통망을 이용한 마케팅과 홍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자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팀	조은정 (전시운영팀장/학예연구사)	사업 진행, 실무



전국 최초 마을방범CCTV 관제 일원화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1번지 해남군”을 만들고자 마을방범 CCTV
관제일원화, 광케이블 전용망 무상 구축,
전용회선 단일화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CCTV 관제 컨트롤 타워 절실

마을 방범 CCTV는 마을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 신속한 상황대응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2년 9개월 동안 통합관제 팀장으로 있으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투자는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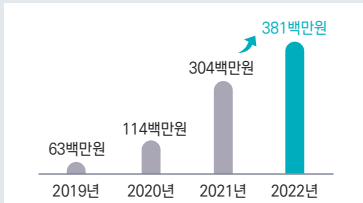
» (기존) 꼭! 마을에 가야해!



» (변화) 마을에 가지 않아도! 관제 천리안!!



» 연도별 전용회선 집행현황 (2019~2022)



» 마을단위 전용회선 일원화에 따른 예산 절감

(단위 : 마을, 백만원)

마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합계	78	339	476	759	918	2,569
44	78	78	78	78	78	392
146	0	0	0	0	260	1,041
77	0	0	0	7	137	412
159	0	0	0	3	283	567
89	0	0	0	0	159	159

515마을 구축완료시
매년 9억 이상 절감

해남군CCTV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관내 515마을간 **상시관제 핫라인을 통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자

- ▶ 마을방법 CCTV 관제일원화 사업 추진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 ▶ 마을단위 광케이블 전용망 무상 구축
- ▶ 마을단위 전용회선 일원화 및 1회선 요금 부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을 관제망은 심각한 노후화와 영상정보관리 취약, 잦은 장애와 함께 사건사고 발생시 수사 기관은 마을방문을 통해야만 관제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효화된 영상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기본으로 마을설명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추가, 촘촘한 관제동선을 확보하였다. 센터에서는 마을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사전예찰하고 상황 발생 즉시 전파, 동선확보, 관제수색, 영상정보제공 등 신속한 상황대응력을 확보하였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가 조언, 모의테스트까지...

그 어느 시군도 시도하지 않았던 군-마을간 CCTV 관제 일원화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구축방법 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예산까지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정면승부가 해법이라 생각하고 검토과정부터 전문가 자문, 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라 한다.)와 공개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존 망 활용, 이중관제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기업 사내망인 인트라넷 방식을 접목하였다.

다만 통신사가 군의 제안을 어디까지 수용해 줄지가 관건이었다. 통신사는 해남군의 제안 조건이 해법임을 인정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비용 발생분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주민참여 현장점검



마을주민 설명회



주민설명회



업무협약

수차례 협상을 통해 마침내 통신사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마을 광케이블 전용망 무상 구축, 나아가 ‘1마을 1전용회선 통합 구축’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다.

해남군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신념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군민과 함께 힘찬 동행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해남군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통신사, 관련 업체 등 상호 열린 소통을 통해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를 통해 통합관제망을 구축하였으며, 부단한 노력으로 전국 최초 군-마을간 방범 CCTV 컨트롤 타워 운영을 현실화 시켰다.

영상전송망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광케이블 전용망을 마을단위로 구축하였으며, 군-마을간 전용회선망을 1회선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어 2026년까지 약 37억원의 예산을, 이후로도 매년 약 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실시간 관제와 기관간 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 관제기반 셉터드 환경을 개선하여 적극적 상황대응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였다.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2022년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통합관제망은 마을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이젠 마을에 가지 않아도 실시간 상황을 예찰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각급 기관 상황실에 전파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상황해결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범죄 검거율을 높일 것이며, 군민들의 안심 체감도도 향상시킬 것이다.

군민이 안전한 해남군의 수호자 역할 ‘톡톡’

“군민이 안전한 해남군”을 만들고자 추진한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 사업은 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이다. 또한 타 시군 마을방범 CCTV 관제망 구축시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마을단위 섹터화를 기반으로 한 전용회선망 전환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CCTV관제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통합관제 시스템구성도



통합관제망 서비스



해남군CCTV통합관제센터



제3회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



제7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해남군을 빛낸 10대 과제

참여자 소감



▶ 해남군청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신념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과 상생 협업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이었지만 노력의 결과는 통합관제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고, 새로 쓰는 역사가 될 것이기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

▶ 해남군청 주무관 송의정

2022년 5월 1일 생소하고 낯선 통합관제팀에 첫발을 디뎠다. 팀장님과 파트너로 함께한 시간들은 매순간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적극행정의 많은 성과들은 공직생활의 성장과 '하면된다'라는 신념을 갖게 하는 등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듯하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김수진	•통합관제 업무 전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송의정	•마을방범CCTV 관제일원화 추진 •각종 공모사업, 협업플랫폼 등



순천시, 카카오톡 한 통이면 ‘생활불편민원’ 일사천리로 해결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불편민원을 SNS 소통 매체인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 순천’ 채널을 개설하여 차원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생활불편민원 신고는 어디에다?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교통표지판 이설 등 생활불편민원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전화로 신고하면 여러 부서를 거치다 끊어지고 인터넷으로 하려니 번거로움이 있다.

내가 올린 민원... 처리는 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접수한 민원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인터넷으로 접수한 민원도 민원 처리 기간인 7일 동안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해서 답답했다.

인터넷 민원 현황 : 10월 한 달 1,778건(안전신문고 1,722건, 기타 56건)

민원 해결을 위한 협업 시스템 부재 및 부서간 칸막이 심화

한 건의 민원에도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부서 간 핑퐁 및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민원 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원 접수부서에서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도 주관부서 이송 시 수일이 걸리곤 했다.

보기에는 쉬워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카카오톡 생활불편민원 접수창구 '일사천리 순천' 개통!!!

일사천리 순천이란 SNS 소통 매체인 카카오톡을 통해 생활 속 시민 불편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구 분	지금까지는	이 제 는
민원접수 창구	안전신문고 + 시장에게바란다	안전신문고 + 시장에게 바란다 + 카카오톡 「일사천리 순천」 추가
민원접수 처리	기존 인터넷 민원 7일	‘일사천리 순천’ - 단순 : 즉시 처리, 복합 : 5일 이내
민원처리 결과안내	접수, 처리결과 등을 서면(오프라인)으로 안내	실시간 특으로 안내 (민원인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민원 접수를 받는다. 실시간 모니터링 후 1차 피드백을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중간 피드백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수시 소통하고 마지막으로 안내해 최종 피드백을 준다. 카카오톡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은 총 3명으로, 채널 총괄 1명, 실시간 민원대응 및 홍보·소식 안내 2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2022년 9월 27일 개통한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는 2,670명이며 2023. 3. 14. 기준 총 1,000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다.

* 도로·교통 400건 / 공원녹지 113건 / 청소환경 95건 / 건설·건축 77건 / 기타 315건

시민불편 제로화 도전! - 불편예상 사안(행사, 공사 등) 등 사전 공지

도로 시설 공사,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은 ‘일사천리 순천’ 소식란을 통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불편 제로화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처리했던 민원 사항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행정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격이 다른 민원서비스를 통한 시민 만족도 up!!, 행정 신뢰도 up!!

- 시민
만족도
UP**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시민은 있어도, 한 번 이용으로 끝내는 시민은 없다.’ 간편한 가입과 원스톱 민원처리, 실시간 피드백으로 시민 만족도가 급상승했다. 이용 시민 블로그인 순광맘(회원수 92,000명)밴드 등에 ‘일사천리 순천’에 대한 만족 글 및 칭찬글이 올라오고 있다.
- 행정
신뢰도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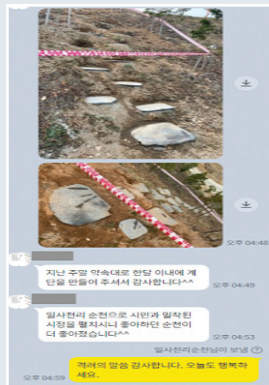
기존 생활불편 민원창구 접수민원이 20% 감소하였고 반대로 ‘일사천리 순천채널 이용’이 증가하는 등 실시간 민원 응대와 전, 중, 후 결과 송부까지 해주시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 협업
시너지
창출**

단순 민원은 부서로 이관하지 않고 처리하는 즉결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일사천리 해결’ 카카오톡 공식 전담팀을 신설하여 민원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서비스
행정의
표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사례 문의가 쇄도하였고 대내외 우수 수범사례로 소개되는 등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행정’의 표준이 될 것이다.



미담사례



1. 일사천리 순천 카톡 내용

2. 일사천리 순천 처리결과 소식 공유



3. 일사천리 순천 민원 후기(지역 카페)



4. 일사천리 순천 응원메시지 모음

참여자 소감



▶ 순천시 자치행정과 이 중 관

해당업무 소관부서를 찾을 필요 없다. 부서 전화번호를 찾을 필요도 물론 없다. 스마트한 시대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톡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생활불편 신고와 궁금하신 사항을 즉시 알려드리는 “일사천리 순천”이 있다. 시민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의 글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란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순천시	자치행정과	이중관(복지6급)	채널 총괄
순천시	자치행정과	최사론(행정9급)	민원 대응 및 홍보
순천시	자치행정과	김정미(실무원)	민원 대응 및 홍보



공공앱을 담은 전국 최초 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해남소통넷’속 공공앱을 개발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수 정책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다.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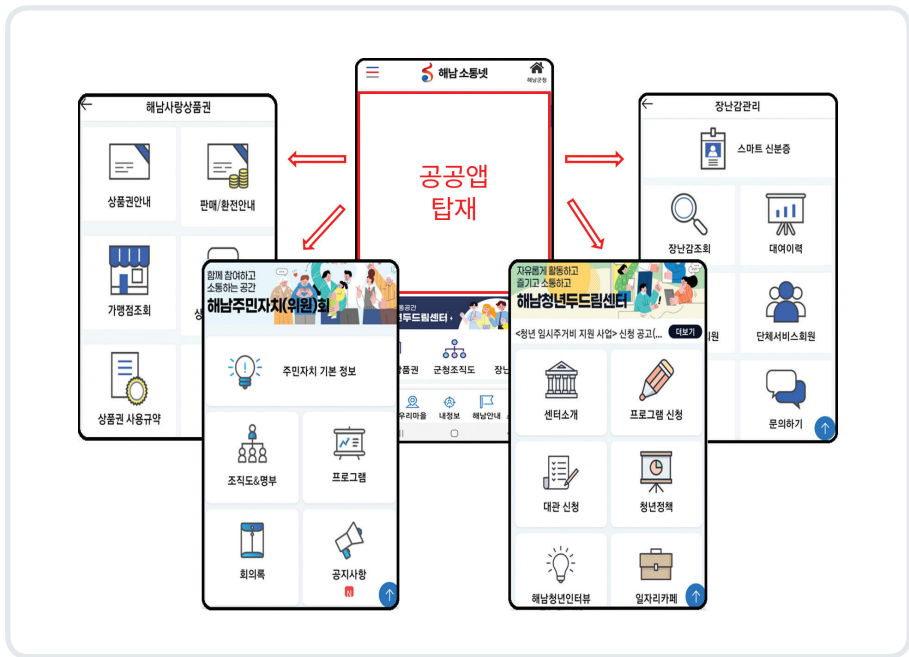
컴퓨터 보다 휴대성이 좋아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대면서비스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컴퓨터 전용 홈페이지는 정보찾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으면서 휴대기기인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민원 제보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초기 시행착오 극복,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이름답게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글이 올라오면 관련 부서로 전달하였으나 기껏 전달받은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만 답변하는 등 초반 시스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직원인 동시에 군민임을 잊지 않고 본인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소통넷은 군민들간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행정과 소통하는 민원창구가 되기도 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징검다리 플랫폼이 되기도 한다. 어느 메뉴가, 어느 공공 앱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여 현재와 같은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였다.



» 해남소통넷 내 기본기능 및 탑재 완료된 공공앱

구 분	게시판/서비스명	설 명
기본기능	자유게시판	· 군민간의 소통 및 실시간 민원 처리의 장
	군민갤러리	· 군민 누구나가 자유로이 사진 업로드 및 정보 공유
	군청조직도	·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직접 찾아 바로 전화 연결 가능
	칭찬합시다	· 선행에 대한 칭찬으로 분위기 개선 및 업무 동기 부여
공공앱	장난감도서관	· 장난감 대여 신청 및 재고 현황 확인
	주민자치회	· 해남군 주민자치위원회
	청년두드림센터	· 청년 두드림센터 공지사항 전달 및 프로그램 신청 접수
	해남사랑상품권	·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정보를 담은 군민전용 앱 개발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 권고를 받았다.

이 중 해남소통넷과 비슷한 유사 서비스 31개는 개선 및 폐기 등급을 받았으나, 해남소통넷만이 유일하게 유지 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해남소통넷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군민을 깊이 생각하고 이용자층을 제대로 고려하여 개발한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는 소통넷 내 공공앱 탑재로 단순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 탑재 예정 공공앱 서비스 및 예상 절감액

(단위:천원)

사업명	계	서버구축	인건비	홍보비 등
계	316,000	130,000	96,000	90,000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서비스	74,000	30,000	24,000	20,000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서비스	74,000	30,000	24,000	20,000
가공임대 기계 모바일 예약 서비스	74,000	30,000	24,000	20,000
एको 재활용 포인트 지급서비스	94,000	40,000	24,000	30,000



참여자 소감

▶ 해남군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황 대 형**

해남소통넷이 군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와 재미를 담으려 노력하겠다.

▶ 해남군 총무과 **이 정 화**

군민과의 소통의 장 해남소통넷!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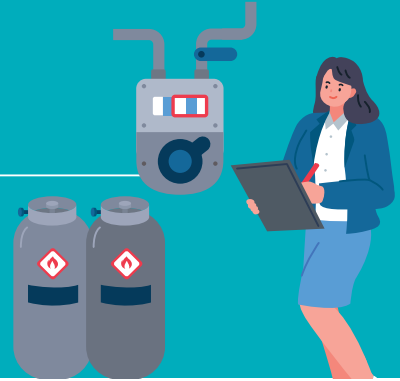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해남군	총무과	황대형 (전산6/정보통신팀장)	소통넷 총괄
해남군	총무과	이정화(시설9)	소통넷 운영 관리





1004섬 신안, 가스사용량으로 어르신 컨디션 알아요!

가스사용량으로 어르신 컨디션을 알아내는 사업
추진으로 고독사 예방, 어르신 돌봄 공백 해소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비대면 돌봄시스템 도입 필요성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는 격리, 돌봄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줄어든 상태였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인데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신안군은 진보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가정생활과 밀접한 가스사용량을 활용해 어르신 활동여부 파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응급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대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스사용량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LPG배관망이 설치된
지도읍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신안군 ↔ (주)1004섬지도읍배관망과 업무협약 체결

지도읍 LPG 배관망 설치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해 가스사용량 등 정보를 수집코자 (주)1004섬지도읍배관망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인적 안정망 TF팀 구축·운영

신안군 주민복지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지도읍 방문간호팀,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LPG배관망이 설치되는 대상자가정을 방문하였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고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를 통해 노후화된 가스레인지 등을 교체해주기도 하였다.

실시간 원격확인 프로그램 개발 및 이상징후 대상자 현장 방문

LPG배관망업체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가스사용량 모니터링 앱을 태블릿 PC로도 호환 가능하도록 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였다.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대상자는 신속하게 방문하여 대상자의 안위와 거주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장기 출타자의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출타자의 현재 건강과 근황, 소재 등을 파악하였고 건강이 위독해보이는 대상자는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119구급팀을 보내 병원에 이송 조치하였다.

어르신 돌봄 공백 해소, 고독사 예방 등 맞춤형 복지 실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감지 및 긴급위기 가구 발굴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였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보호자와의 상시연락체계 구축으로 고향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등 어르신 복지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미담사례

[지도읍 마을 주민]

홀로 사는 노인들은 혹시라도 몸이 아파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해준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놓였다. 신안군에 고맙게 생각한다.



참여자 소감



▶ 신안군 주민복지과 팀장 **황혜량**

향후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운영을 위해 가스사용량 뿐만이 아닌 전기, 수도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안군 주민복지과 주무관 **서민우**

신안군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접목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살기좋은 1004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신안군	주민복지과	황혜량 (주민복지과 팀장)	업무 총괄
신안군	주민복지과	서민우 (주민복지과 주무관)	업무 협업





02. 협업 우수사례

- 전국 최초, 광역 道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 클릭만으로 '청년 문화 복지카드'가 손 안에!
- 여수항(국동항) 내 소화시설 설치



전국 최초, 광역 道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여러기관간 협업을 통해 독립운동가 중 자료가 부족하여 서훈을 받지못한 미서훈자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의향 전담' 정체성을 확립하다.



미서훈자 발굴 → 후손들의 책무, '의향전담' 정체성 확립의 길이라 생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도내의 독립운동가 중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 안타까웠다.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무이고 '의향 전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전국 최초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 추진 1단계 3·1운동, 2단계 한말의병 중심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을 단계별(1~2단계)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21. 8.~'22. 6.까지 10개월간 3.1운동(1919~1920)을 중심으로 미서훈자를 발굴하였고 '22. 10.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말의병 중심으로 2단계 미서훈자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개 시군, 초당대, 광주전남연구원 등 여러기관간 협업

독립운동사, 시·군 문화원 편찬사 등 관련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하였다.



전남도 미서훈자 발굴 신청

1단계 3·1 운동 중심, 미서훈자 발굴사업 마무리 미서훈자 128명 발굴, 80명 서훈 신청, 그중 16명 서훈 확정

3·1운동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서훈 신청한 80명 중 광복절 때 6명, 3·1절 때 10명 등 지금까지 총 16명이 늦게나마 추서되었다. 앞으로 심사를 통해 서훈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년) 3·1절 서훈 10명(대통령표창 / 목포1, 순천 1, 구례 1, 해남 4, 영암 1, 무안 1, 영광 1)

앞으로 2단계 미서훈자 발굴 완료 후 **‘전라남도 독립운동사’** 발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4년 이후)





참여자 소감

▶ 지역보훈팀장 김 상 철

전남도내 독립에 공을 세운 분들은 많으나 안타깝게도 국가기록원 판결문, 문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서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도내의 마지막 한분의 독립운동가까지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작년부터 3·1운동 중심으로 미서훈자 128명을 발굴하여 80명을 신청한 결과 16명에 대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늦게나마 회복시켜 드려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보람됐다.

▶ 주무관 김 영 현

광역시자체 최초로 우리도가 직접 발굴한 미서훈자 중 '22년 광복절(8·15)때 서훈이 확정된 6명 중 독립운동가 3분(故 이복점, 故 이은득, 故 이금득)은 1919년 당시 목포 만세 시위에 참여한 3남매인 것으로 밝혀져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도 미서훈자 발굴 2단계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마지막 한분까지 반드시 찾아 내서 하루빨리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학예연구사 정 명 희

한 집안의 3남매를 포함 전남 출신 16명의 독립유공자 발굴은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는 전라남도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김상철 (지역보훈팀장)	독립운동미서훈자 발굴 총괄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김영현 (주무관)	독립운동미서훈자 발굴 추진 담당자
전라남도	공훈발굴과	정명희 (학예연구사)	독립운동 서훈심사



클릭만으로 '청년 문화 복지카드'가 손 안에!

여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클릭만으로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도민 편의 도모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다.



청년인구 비율 전국 최하위, 고령인구 비율 전국 최고,

유출 인구 중 86%가 청년층 → 청년 지원사업 필요

인구구조가 취약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도내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였다.

'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 (기간/대상) 2022. 1. ~ 12.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21세 ~ 28세), 12만명
* 2023년부터 19세까지 하향 확대(최대 10년 간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연 20만원씩 문화복지비 지급(체크카드)

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와 은행 방문이 필요했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과 '카드 등기 송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지원절차



은행과 협약 체결, 직접 방문없이 신청, 자동충전 사용가능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카드 온라인 신청 및 송부 체계를 구축하여 직접 방문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 바우처 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매년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자동 충전하여 사용 가능

카드 신청란(광주은행) 카드 우편 안내장(광주은행) 카드 신청란(농협) 카드 우편 안내장(농협)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였지만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22. 3. 30.)을 받아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활용 전

- 사업 신청1회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 신청2회 방문(은행)
- 주민등록초본 제출
-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비(3억) 필요

활용 후

-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 클릭만으로 사업신청과 카드수령 가능
-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 은행누리집 활용으로 예산절감

민원인 편의 도모, 서류제출 부담 경감, 예산 절감 등 1석 3조

클릭만으로 사업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절약으로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은행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매년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지원금을 자동충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 요건 충족시 최대 10년간 지원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요건 직접 확인으로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고,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에 자체예산(3억)을 투입하지 않고, 협약을 통해 은행에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우편송부 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 예산절감 노력으로 '22년 전라남도 예산성과금 사업으로 선정

전국 최초 청년 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문화복지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 소감

▶ 인구청년정책관 팀장 **안 재 석**

전남 청년인구가 전국 최하위이고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전남청년 문화 복지카드 지원정책이 청년인구 유지 및 유출 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

▶ 인구청년정책관 **송 은 송**

청년 지원시책이 널리 홍보되어 앞으로도 전남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정혜정 (인구정책팀장/행정5급)	시책 발굴 및 관리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송은송 (주무관/행정7급)	시책 추진 및 관리



여수항(국동항) 내 소화시설 설치

전국 최초로 소화시설이 없어 화재사고가 빈번한 국동항에 여러 기관이 협업을 통해 사전 재난대비 시설인 '옥외 소화전'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다.



국동항 소화시설 전무, 누구하나 나서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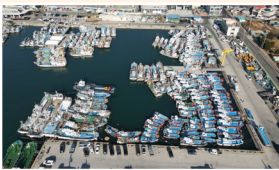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약 1,000여 척의 어선이 밀집하여 정박하고, 항 내에서는 크고 작은 선박 화재사고가 '20년 11건, '21년 12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최근 3년간 정박 선박 화재 접수현황 : 32건('19년 9건, '20년 11건, '21년 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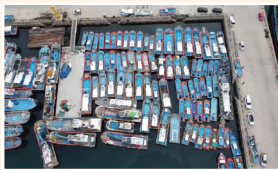
하지만, 국동항 내에는 소화시설이 전무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고, 소화전을 관리하는 소방서는 예산이 없어 업무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국동항은 해수부 소유 토지로 관계인이 많아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는 곳이었다.

* 국동 · 신월동에 설치된 소화전 66개는 항포구 밖 일반도로로 위치하여 사용 불편

이런 국동항에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소화시설이 전무,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항내 선박 밀집 계류 ①



항내 선박 밀집 계류 ②



국동항 내 어선 화재장면

그래서 나섰다. 도민 안전 지킴이로

전라남도가 주도하여 2022년 2월 여수시·여수소방서·여수해경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소화전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후 7월에 소화전 설치 개수와 위치를 확정하고, 8~9월에는 여수 수협과 서부어촌계 동의서를 구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허가를 받아 소화시설 4개소를 설치했다.



관계 기관 업무 분담 회의



설치 위치 현지 확인 ①



설치 위치 현지 확인 ②

협업을 통한 어민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한 모범 사례

정박 선박이 밀집된 항·포구 내 소화 시설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어항부지에 사전 재난대비 시설인 ‘옥외 소화전’ 설치는 여러 기관의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해 어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한 전국 모범 사례이다.



옥외 소화전 현지 확인 ①



옥외 소화전 현지 확인 ②



설치된 옥외 소화전



참여자 소감

▶ 전라남도청 섬해양정책과 팀장 **형 남 준**

어항 부지에 사전재난 대비 시설인 ‘옥외 소화전’ 설치는 여러 기관간 협업을 통해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뿌듯했다.

▶ 여수시청 상수도과 주무관 **황 수 만**

사업 시행 당시에는 국동항 내 화재 발생 건수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다. 화재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협업기관 소감

▶ 여수바다파출소 **정 민 두**

해수부 소유 국동항, 어촌계, 수협 등 여러 기관이 걸쳐 있어 이렇게 빨리 설치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사님이 관심가져 주시고 전남도에서 먼저 나서서 여러 기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형남준 (섬어촌개발팀장)	총괄
여수바다파출소		김광철(경감)	설치필요성 제기 설치 위치 협의
여수시	상수도과	김혁(수도급수팀장)	시설 설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반준석(팀장)	어항개발사업 협의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김한수(소방장)	시설 유지관리



03. 혁신 우수사례

- 우리동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청자골 1번가(家)’
- 꿈꾸는 펠트병의 재탄생
- 너랑 나랑 함께 키우고 나누는 행복
(휴경지를 활용한 나눔·안전 돌봄)
- 우유팩을 모아 지구를 지킬 LAB(종이팩 정거장)
- 사계절 행[동하는] 복[지]!! 1004마을 중앙동
- 세상을 돕는 비행, 재능기부 드론봉사단 공익활동!
- 따스한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
- 어르신들과 아름다운 동행 ‘맛나GO~ 해피하GO~’



우리동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청자골 1번가(家)'

어르신들이 가정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나서다.



어르신 가정에 안전을 선물하자!

2022 사회혁신 공모사업 공고문을 처음 보았을 때, 군의 대표 사회기관인 새마을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고, 2021년 복지기동대로 활동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유니버설디자인(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 적용으로 편리하긴 하지만, 당신들께서 평생 살던 집에서 거주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 집안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청자골 1번가 프로젝트 본격 스타트!

어르신 세대 중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안전 손잡이, 무선 전등 스위치, 미끄럼방지 매트 등) 설치와 편리한 이동을 돕는 저상 계단 설치가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자 강진군새마을회 전체 회원 681명을 대상으로 사회 혁신 공모사업 "청자골 1번가"에 대한 읍·면 순회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후, 읍·면사무소의 복지팀과 의논해 수혜 가정을 선정하였다. 수혜자 선정 후, 봉사팀이 1차 방문하여 사업의 규모와 계획을 구상하고 재료와 인력을 준비하였고, 계획대로 안전 손잡이, 무선 전등스위치(LED등) 설치, 실내경사로 및 저상계단 설치 등을 진행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집에 물건이 고장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절약과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물건을 수리 해 드리면 “오메~ 우리 부녀회장 고맙네 잉~ 우리 딸보다 낫네이~”이라는 말씀과 함께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이셨고,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소규모 수리·수선을 추가로 진행하여 생활 불편을 해결해 드렸다.

완료 후에는 재방문하여 고장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사후관리도 꼼꼼히 챙겼다.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LED전등 교체(전)



LED전등 교체(중)



LED전등 교체(후)



저상계단 및 입구 경사로 설치

보람 가득! 행복 가득! 더 큰 꿈을 그림니다.

이번 사업은 읍면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하루종일 마루에서만 생활하셨던 98세 어르신은 마당으로 내려오는 저상계단 덕분에 행동반경이 넓어져,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 이처럼 간단한 집 수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고 삶에 대한 애착심과 즐거움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봉사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지역신문에 사업 홍보가 많이 되어 수혜자(어르신)또는 자녀분들한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고, 원하는 사업방향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등 사업 참여도 매우 활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로 당초 계획(25가구)보다 많은 49가구에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

향후에는 사업의 폭을 넓혀 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접목해 보려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복지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강진군새마을회 과장 **정 미 자**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계신다. 앞으로도 봉사과 나눔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취약계층에 작은 힘을 보태고 강진에 희망을 그려 나가고 싶다. 새마을회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좋은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 강진군 총무과 주무관 **김 기 상**

혁신이라는 단어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다. 앞으로 그 작은 발걸음이 조금씩 확산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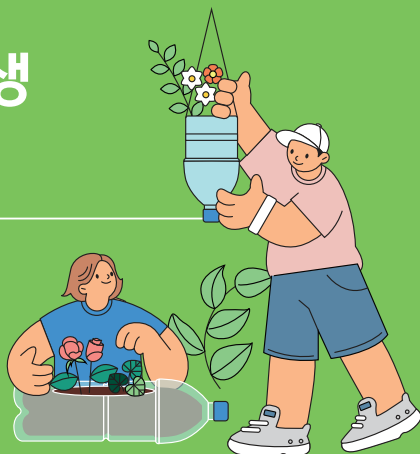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강진군	강진군새마을회	정미자(과장)	사업진행, 실무
강진군	총무과	김기상(행정9급)	사업지원





꿈꾸는 페트병의 재탄생

환경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폐기되는 유색 페트병을 활용한 캠페인, 재활용품을 활용한 교육 키트 제작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서다.



페트병의 재탄생을 꿈꾸며

쉽게 버려지는 페트병의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페트병 및 플라스틱의 양은 매우 낮다. 또한 유색 페트병 및 플라스틱의 경우 처리비용 문제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폐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올바른 분리수거만으로도 자원 재활용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를 교육 키트 제작 등으로 재탄생시켜 탄소중립 실천, 시민 인식개선에 기여해 보자는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페트병 모아모아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바른 페트병 분류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및 거리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다.

유색 페트병을 직접 10회 이상 수거하여 세척 및 건조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업사이클링 재료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페트병 수거 과정에서 시니어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며 연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참석자 대상 업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용품(액자 체험 키트, 철수세미 보호대, 모빌 등)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돌봄센터에 전달하였다.

광양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키트 알리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페트병 활용법을 홍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공유회 및 기부식을 통해 제작 키트 400 점을 광양시 아이키움센터에 전달하였다.

기 부 처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
금광블루빌A 마을공동체	• 액자 체험키트 100개 • 분리수거함 1점	100명
아리아리플리마켓 플리마켓행사	• 액자 체험키트 100개	100명 (마동근린공원)
광양시 아이쿱	• 액자 체험키트 400개	400명 (광양시 공동육아지원센터)

무시할 수 없는 페트병의 무시무시한 변신

페트병을 가져오면 다육식물로 교환해 주며,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주부 대상 페트병 재활용품 체험을 실시하여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분리배출 미흡 공동주택이나 마을에 유/무색 분리수거함을 배치하여 환경정화에 기여했다. KBS 순천 라디오 출연기회도 있었다. 유색 페트병 재활용 작업과정에서는 절단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페트병을 활용한 키트 제작 확대, 관련 프로그램 강사 발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7 업사이클링
교육 및
제작



8 분리배출
알리기
행사



9 참여
전달식



10 공유회
&
기부식



참여자 소감



▶ 광양시 시민참여단 대표 **안은영**

평소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실천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계기로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캠페인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시민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광양시	전략정책실	염혜린	사회혁신 공모사업 담당
광양시 시민참여단		안은영(대표)	공모사업 추진



너랑 나랑 함께 키우고 나누는 행복(휴경지를 활용한 나눔·안전 돌봄)

휴경지를 활용한 “공동 재배+희망 나눔+안전 돌봄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고와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혁신 성과를 만드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소홀해지고, 우울감·고립감 심화,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증가 등 모두가 멀어지고 이웃간의 정은 메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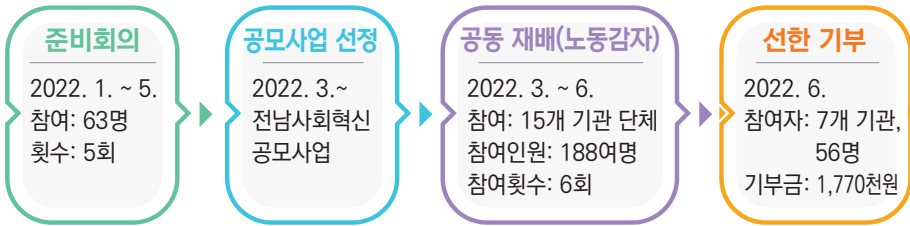
날로 심각해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고와 결식 문제

농촌지역 내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휴경지가 늘어나고,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하였다.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휴경지를 활용한 새로운 돌봄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다 함께 심고, 다 함께 가꾸요

7개 기관·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500평에 달하는 공동텃밭에 감자를 심고 함께 가꾸어 나갔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논의하고, 활동하고, 기부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하였다. 총 1,180kg의 감자와 기부물품 등은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총 1,770천원(10kg 단가 15,000원*118박스)이라는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판매 금액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선물 꾸러미를 나누고, 희망도 함께 나눕니다

5개의 여성 봉사 단체(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여성의용소방대, 희망드림협의회)는 매월 1회 단체별로 순회하며 밑반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회원 간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독한 독거노인, 장애인, 암 투병 환자, 어린이 등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310세대에 13회 밑반찬 나눔을 실시하였다. 또한 5월 11일에 25가구, 9월 1일에 75가구에 선물 꾸러미를 배달하여 정서적·경제적인 돌봄을 이뤄냈다.

4. 21.	5. 11.	6. 23.	7. 19.	8. 19.	9. 16.	10. 14.	11. 15.	11. 25.
자원 봉사	새마을 부녀회	여성 의용소방	생활 개선회	여성 의용소방	여성 자원봉사	새마을 부녀회	생활 개선회	여성 자원봉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안전에 취약한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많은 분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노동면희망드림협의회·미력파출소·노동면이 협업하여 24개 마을 회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치안 정보와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제공하였다. 파출소와 협업해 월 1회 마을을 순회·방문하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주 1회 복지 및 치안 제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미(米)인

노동면희망드림협의체와 많은 주민분들께서 쌀과 현금을 기부하셨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63명이고, 수혜자는 총 400명에 달했다.

봉사하는 시간이 곧 축제 시간이 되고, 지역공동체가 情(정)이 든 아름다운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

보성군이 개최한 9번의 소통회의에 15개 기관·단체이 참석하였다. 또한 5개 단체에서 총 50명이 협약서를 작성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봉사하는 시간이 곧 축제 시간인 것처럼 5개 기관과 10개 단체에서 함께 감자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였다. 수확량은 총 1,180kg으로, 기부금액은 1,770천원에 달하였다.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수확량(1,180kg) 대비 2배 이상의 수요(2,480kg)를 창출하였다. 부족한 공급분(1,300kg)은 관내 지역 농가에서 사들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5개의 여성봉사 단체는 9회에 걸쳐 밑반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희망드림협의체 회원 20명은 100명에게 선물꾸러미를 배달하였다. 건네주고, 건네받는 시간 동안 지역공동체는 정을 쌓으며 하나라는 의식을 키워나갔다.

“너랑 나랑 함께 키우고 나누는 행복”은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서 지속 분야로 선정되어 2023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보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관·단체 만남 및 협약



나눔 그리고 소통



그대 내게 행복주는 미(米)인

참여자 소감



▶ 희망드림협의체 팀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단체가 의견을 모으고 역할 분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 희망드림협의체 담당자

바쁜 농사철 시기이지만 지역민이 합심해서 봉사하는 현장이 축제처럼 즐겁고 소중해서 더 의미 있었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미력파출소	미력파출소	오세균(파출소장)	안전·돌봄



2022년

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순천시

우유팩을 모아 지구를 지킬 LAB(종이팩 정거장)



자랑스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연 생태스러운가?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유팩을 모아 지구를 지킬 LAB(종이팩 정거장)」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

우리는 '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면 거창한 사업들을 내세우려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재활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눈앞에 놓인 카페라떼 한 잔이 깨달음을 주었다. 바로 우유! 어린이가 있는 집뿐만 아니라 수많은 카페에서 매일 사용하는 우유! **우유팩을 재활용해 보자!**

종이팩 수거를 위한 정거장 마련

종이팩 수거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우유팩 재활용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은 무엇일까? 의무가 아닌 즐거움 속에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거를 게임처럼 여길 수 있도록 정거장을 만들었다.

종이팩 정거장

종이팩 정거장은 종이팩을 모아두고, 수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재활용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거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딘가에서 와서 어딘가로 가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지구에 잠깐 머물다 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었다.

인식개선 캠페인

우유팩 재활용 캠페인을 시작한 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우유팩도 일반 우유팩, 멸균팩 등 종류가 다양했으며 재활용 방법도 달랐다. 어렵게 모아주신 우유팩을 낭비 없이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했다.

유익한 파트너십 확대

초기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유익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구 살리기’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이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

유익한 활력소를 중심으로 우유 소비가 많은 카페와 개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종이팩 수거, 화물차 발송 등 재활용의 전(全) 과정을 SNS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우리의 전략이 먹혀든 것인지 종이팩 수거량은 2022년 12월 기준 2,237.22kg(우유팩 1,000mL 기준)로, 전년도 수거량(2,028.64kg)과 비교하였을 때 약 10% 증가했다.

적치 공간 확대

지역 내 유희공간을 정비해 종이팩 정거장으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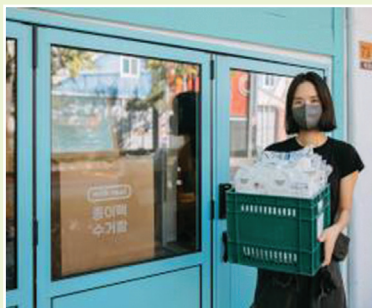
시민 및 카페 참여율과 종이팩 수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거한 종이팩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종이팩 재활용 참여가 높은 조곡동을 중심으로 수거 적치 공간을 마련하여 종이팩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올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순천역 근처, 유익한활력소와 인접한 위치에 별도 공간을 조성해 수거와 교육을 병행한 ‘자원순환 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종이팩 재활용 방법 안내 **찾아가는 강의와 지역 행사를 통해 올바른 재활용 방법 홍보**

청소년의 생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 참여학교와 신규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를 찾아가 생태·환경분야 강의도 했다.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해 청소년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순천 왕운중학교와 고흥 풍양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한 재활용 교육에는 청소년 150여 명이 참여했다.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회와 「차이나는 쓰레기 클래스」를 진행해, 출장 종이팩 교환소를 운영했다. 또한 순천시 생태전환 활동가 키움학교 「밀크로드」 강의를 통해 미래 생태전문가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2순천웹툰페스티벌에서 종이팩 재활용 부스를 운영하고, 순천 로컬브랜드인 순습과 협력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한 '생태 문화 공감 전시회'에서 공리공생 전시회인 「밀크로드 전시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종이팩 정거장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학교에서 모아준 우유팩

* 종이팩 정거장 : 순천시 역전길 73

파트너십 구축 카페, 음식점, 개인, 어린이집, 학교 등 파트너십 구축

현재 카페 및 개인 사업자는 2021년 48개 업체에서, 2022년 56개 업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참여자 역시도 2021년 55명에서 71명으로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참여도 21년 9개교에서 순천별량중학교, 구례토지초등학교 등 10개교가 신규 참여해 2022년 19개교가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같이하고 있다.

종이팩 재활용, 지역에 뿌리내리다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강의 요청으로 순천 인근 도시(광양, 여수)를 방문해 우리의 재활용 사례를 타지역에 소개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팩의 자원화를 알린 덕분에 개인 참여자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2019년부터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율도 제법 늘었다. 특히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일상 속 생태문화 정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역시 괄목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변도시와 연계한 종이팩 정거장 구축으로 순천의 생태 문화가 다른 지자체로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구를 구한다는 자부심

‘정원에 삽니다’는 순천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태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대표적인 순천형 생태캠페인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 재활용을 넘어 종이팩을 활용한 친환경 교구 개발을 통해 종이팩의 새로운 가치와 종이팩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순천을 넘어 청정 전남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담사례

꾸준히 자원 재활용에 참여하는 모녀가 있다. 딸은 순천신대초등학교 6학년때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 수업을 듣고서는 방학기간 동안 종이팩 모으기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지구에 더 오래살기 때문에 종이팩 재활용은 중요하다'고 엄마를 설득했다.

카페 창업 전 이미 SNS에서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고, 카페를 창업한 후 그간 유익한 캠페인에 동참했던 청년창업가와 친구의 소개로 밀크로드(파트너십 구축)를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소감



▶ 유익한활력소 대표 양진아

소규모로 시작했던 유익한 활력소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덧 순천을 대표하는 생태 캠페인으로 자리 잡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청정전남, 생태수도 순천을 위해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

▶ 순천시청 담당자 이지은

기후위기로 인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를 쓰레기로 둘 것이 아니라, 자원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러한 유익한 캠페인 활동이 지역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명	부서명	성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순천시청	기획예산실	김동영(기획팀장)	전남사회혁신사업 총괄
순천시청	기획예산실	이지은(행정8급)	전남사회혁신사업 수행



사계절 행[동하는] 복[지]!! 1004마을 중앙동

아이 키우기에 서툰 엄마들을 위한 친정엄마 정(情) 프로젝트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를 시작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100세 희망드림」 사업까지... 아이키우기 좋고 세대간 소통하는 행복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팔걸고 나서다.



서툰 엄마들의 멘토를 찾다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 역할에 서툰 엄마(부모)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마음 따뜻한 자원봉사자를 찾아 나섰다.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우리 마을」을 실현하고자 했다.



자원봉사대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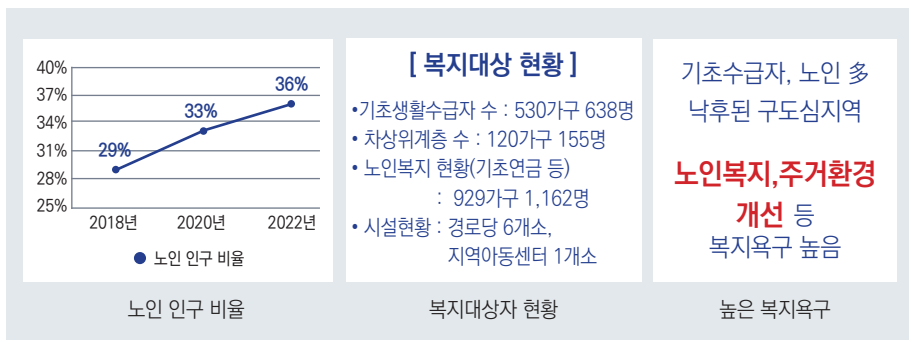
위촉장 전달



선서문 낭독

경로당과 함께 더 건강한 중앙동 만들기에 나서다

여수시 중앙동은 여수의 구도심으로 노인 인구수가 35%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우울감 완화, 치매 돌봄과 같은 복지 서비스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이분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작품 활동과 치매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 선정을 위해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통장님 및 지역 사회협의체 위원들의 추천으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가정, 다자녀 가족 등을 선정하였다. 이후 ‘중앙동 보드미 나누미 자원봉사대’를 결성해 여성 자원봉사자와 대상 가정이 1:1 결연을 맺었다.

자원봉사자는 월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정서지원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구원이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에게는 분기별(총 3회) 분류, 책, 옷, 학용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아이 아버지는 인테리어 설비 등 일용근로를 나가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던 중 엄마의 산후 우울증으로 자녀는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로인해 6살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말할만큼 언어 발달이 늦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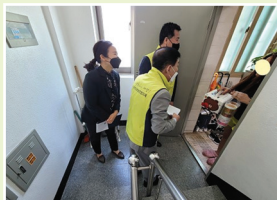
이후 1:1결연을 맺은 자원봉사자가 월 1회 방문하여 부모 심리치료를 지원하였고, 아이에게는 평소에 결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영양제 선물, 분기별 물품(책, 옷 등)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지원금 만으로는 아이의 자폐성 장애 치료효과가 미비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치료 시간을 늘렸다.



정서지원



맞춤물품 지원



대상자 가정방문

즐거로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경로당 4개소에서 지역 내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사전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공예, 실버체조),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매회 강사를 초빙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우울증 및 치매 검사결과를 정신건강센터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관리가 지속되게 하였다. 혈압 및 당뇨 자가 측정법에 대한 교육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공예작품 만들기 및 실버체조에도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했다.

10월 말 개최한 작품전시회에서는 경로당별 활동사진 전시 및 이웃 분들과의 소감 나누기 등을 진행해 전시회에 참여하신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짬 없는 추억의 뽀빠’ 등을 활용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시회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건강체조



공예활동



치매예방교육



건강관리

건강100세 희망드림사업 프로그램 구성



03
건강100세 희망드림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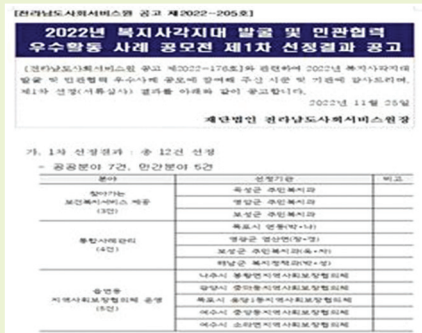
회차	시간	활동내용	비고
1회차	120분	○ 사전 평가(CIST, SGDS-K, SMCQ)	간호직
		○ 인지자극치료(공예활동) : 양말목공예(안마봉)	전문강사
		○ 운동자극치료(실버체조)	전문강사
2회차	120분	○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간호직
		○ 인지자극치료(공예활동) : 냅킨아트(냅킨발침)	전문강사
		○ 운동자극치료(실버체조)	전문강사

프로그램 구성

아이와 어르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1004마을 중앙동

친정엄마 정(情) + 프로젝트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사업을 통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나눔을 실천하였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계속 발굴해 아이와 엄마에게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 우수활동 사례 분야 최우수상 시상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100세 희망드림’사업은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노인 질병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께 행복을 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최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공예활동 결과물



작품전시회



작품전시회



▶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팀장 **김 남 희**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으나 선뜻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사업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여러 지원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작품활동과 운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시간이었다. 경로효친의 마음으로 치매에 대한 가정의 부양부담을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김 미 정**

한국말이 서툴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1년 동안 따뜻한 친절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너무 보람된 한해였다. 한편으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행사준비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여수시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김남희(맞춤형복지팀장/행정6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전반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100세 희망드림 사업” 추진
여수시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김미정(사회복지7급)	





2022년

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영광군

세상을 돕는 비행, 재능기부 드론봉사단 공익활동!

영광드론봉사단은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드론 안전 감시·산불 예방·인명구조·비행금지구역 불법 비행 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과 재능기부 확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감시망 ‘드론 인프라 구축’ 필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산불발생과 같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역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디지털에 기반한 ‘드론’을 활용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드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다

영광군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총 239명이 초경량무인비행장치조종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취득자 중 114명이 사단법인 영광드론협회에 가입하여 ‘드론 재능기부 공익활동, 드론봉사단’이라는 ‘드론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의 틀을 마련하였다.

(사)영광드론협회 드론 봉사단의 첫 번째 발자취로 협회는 영광군과 ‘드론 협업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드론봉사단 발대식’ 개최로 ▲드론의 안전한 비행 환경 공유로 드론 산업 발전에 공헌, ▲드론 진로체험 및 교육 사업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드론 활동 분야 확대로 지역주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협약하였다.

발대식 행사에서는 드론 산불감시 출동·경고 방송 시연과 익수자 발생 상황에서 해상 인명구조 드론의 구조 튜브 투하 상황을 재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드론 봉사단은 ▲재해재난 시 조난자 수색 및 구호 활동 지원, ▲산불 예방 활동, ▲해상 인명구조 지원, ▲실종자 수색 지원, ▲해안 경계 및 원전 주변 불법 드론 감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드론봉사단 발대식



드론 역량강화 벤치마킹



드론봉사단 워크숍

드론봉사단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영광군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제8332부대 3대대와 국가중요시설 한빛원자력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드론봉사단의 활동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드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앞장서 왔다.

봉사활동 수행성과 이행률 100%(12건, 168일, 참여자 374명)를 이끌어 내었으며, 드론 사회혁신 과제 수행 및 인력육성을 위해 드론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드론봉사단 회원은 고흥드론센터를 방문하여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고흥군과 ‘드론 축구대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드론 재능기부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드론 봉사단의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모사업으로 활동하는 내용은 지역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① 영광군, 2022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선정 쾌거(2022. 4. 20.), ② 영광군, 드론봉사단

재능기부 공익 봉사활동 눈길(2022. 9. 14.), ③영광군, 드론봉사단 선진지 견학 성료 (2022. 12. 6.), ④ 영광군, 드론봉사단 워크숍 성황리 개최(2022. 12. 7.) 등 드론 봉사단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끝으로 사단법인 영광드론협회, 재능기부공익 봉사활동 드론봉사단의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 주소: <https://www.youtube.com/@user-hj1qp9uz6b>



두우리해수욕장 인명구조 봉사활동



2022 이모빌리티엑스포 봉사활동



치매환자 실종자 수색 지원활동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금지 계몽 활동



2022 법성포 단오제 축제 봉사활동



2022 영광군민의 날 행사 봉사활동

총형무진 재난 현장을 누비는 드론 활약 기대

드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재해 대응 지원, 안전 감시·예방 등 지역사회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각종 봉사활동에 임하는 한편 영광드론협회와 봉사단간 상호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조직안정화는 물론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드론 인프라 구축은 명실공히 지역문제를 톡톡히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자리매김 하였다.

앞으로도 영광군 드론 봉사활동 우수사례를 지역에 확산하고, 드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주)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또한 봉사 인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활동영역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미담사례

2022년 7월 28일 오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부근에서 치매환자(여 90세)가 고구마 밭을 둘러보려 외출 후 집에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실종자 수색은 영광경찰서, 소방서, 드론봉사단이 협업하여 실종 반나절 만에 발견하였으며, 실종자 건강 상태는 다행히 양호하여 가벼운 병원 치료 후 무사히 집에 귀가하였다.



참여자 소감



▶ 영광군 군수 강종만

공모사업 추진 계기로 “드론 운용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한 재능 기부 공익 봉사활동에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라며, 사회혁신과 지역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농업활동 외 봉사활동 등의 역량발휘에 큰 박수를 보낸다.

▶ 사단법인드론협회 회장 유영일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영광군 드론봉사단의 동기부여, 현장 활동 안전성 제고, 역량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농촌지도관)	봉사활동 지원부서장
(사)영광드론협회	(사)영광드론협회	유영일(회장)	봉사활동 책임자



따스한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

어쩌면 삶에서 흔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작은 것들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할 수도 있다.



식은 죽 먹기일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때 뉴스를 통해 빅타이 매는 법부터 면도하는 법, 셔츠를 다리는 방법 등 누군가에게는 쉬워 보일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한 외국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어릴 적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많은 것을 깨우쳤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고 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이 겪는 사소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마을 이장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

천장이 높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쉽지 않은 일이다. 전등의 수명이 다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TV가 비춰주는 빛에 의지해야만 했다. 타지에 거주하는 바쁜 자녀들, 언제 올지 모르는 봉사단체 등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장성군 청년재능나눔협의회(이하“보조단체”라 한다.)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형광등 교체였다. 평소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때에 종종 요청받은 기억이 있었다.

단순 교체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가정용 전등의 수명은 약 8천 시간 내외로 약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품에 따라, 사용 습관에 따라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빠른 편이다. 이에 반해 LED 전등은 평균 5만 시간이며 5배 이상 훌륭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도 챙길 수 있다.

콩 하면 짹, 전방위적 협조체계란 이런 것이다!

기관(군청·읍면 행정복지센터·장성소방서)부터 단체(보조단체, 읍면 사회단체 등)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협업과 분업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사업수행과 사후관리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모두가 소리꾼이 되어 사업 소식을 알렸고 대상자를 발굴했다. 보조단체와 읍면 사회단체가 함께 LED 전등을 교체했고, 장성소방서에서는 노후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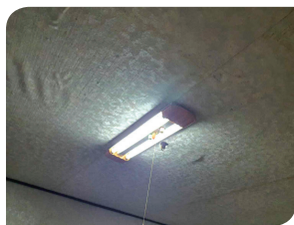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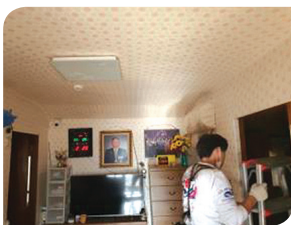
따스한 행복 등불을 밝히다.

그야말로 노다지였다. 사업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대상자가 물밀듯 밀려왔다. 4개월간 52가구(3개 면, 5개 마을)의 전등을 교체했다. 또한 22가구(1개 면, 2개 마을)의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낡고 고장 난 전등을 교체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약까지 이뤄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기조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정부는 2028년부터 기존 미달 형광등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실상 퇴출당하는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마음에 따스한 등불을 밝혔고 환경문제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작고 사소한 일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등처럼 밝게 빛나는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것이다.





▶ 장성군청 기획실 기획팀장 **이 미 경**

군정 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협업과 분업의 효율적인 조화로 문제를 해결했다.

▶ 장성군청 기획실 주무관 **이 동 규**

‘이런 일까지?’라고 느낄 수 있는 손쉬운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재능을 나누려는 동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 듯하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장성군청	기획실	이미경(기획팀장)	업무 총괄
장성군청	기획실	이동규(주무관)	업무 협업





2022년

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화순군

어르신들과 아름다운 동행 '맛나GO~ 해피하GO~'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추억의 짜장 식사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펼쳐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힐링의 시간을 가진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든든한 벗이 되자

지역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외 받고 있다는 느낌을 해소해 주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문화예술 복지 사각지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잠시나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구소멸 지역 내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타지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왕래가 끊기고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노인 우울증 위험이 2배가량 증가했다는 공식적인 연구결과도 나왔다.

평소 지역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방문해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추진해왔던 '아름다운 동행'은 지역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살리고자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화합의 장 마련

한 번의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단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동행 회원들이 직접 짜장식사 준비를 위한 장을 보고 재료손질부터 제조까지 모두 회원들이 손수 만든다. 식사에 어우러지는 흥겨운 공연은 관내 가수협회, 연예인협회의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일은 마을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자율방범대 봉사단, 화순군 가족지원센터 봉사단 등 여러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동행의 주도하에 여러 단체가 협력해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과 주민 화합의 장이 열린다.



짜장식사 재료 손질



짜장식사 만드는 중



짜장식사 제공

2,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힐링의 시간 제공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행사 일정을 미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일정을 조율하여 6월 22일 능주면 복지회관 행사를 시작으로 화순읍 신기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동북면 등 총 6회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회당 최소 3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의 협업으로 아무 사고 없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 어르신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억의 짜장식사를 한 후, 신명나는 공연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동안의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동북면 행사



능주면 행사



화순읍 신기리 행사

어르신들 웃음과 함께 지역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행사가 되었다.

「맛나GO~ 해피하GO~」는 단순한 식사와 공연 제공이라는 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 간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행사는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지역에서 와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곳들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댄스



고령의 어르신 노래 참여



어르신들 말동무 해드리기

참여자 소감



▶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주무관 **배 정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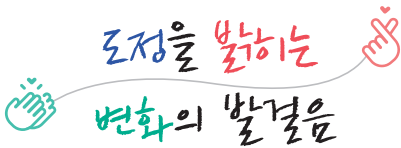
공공기관 주관으로 추진하던 공연행사를 지역 사회단체들이 협업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추진하는 단체들도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더욱 뜻깊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사였다.

▶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장 **김 원 식**

소멸되어 가는 자연마을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 한끼와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런 기회를 준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고마움을 느꼈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직위/직급)	(협업)역할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배정아(주무관)	업무 총괄
아름다운 동행		김원식(사무국장)	업무 협업

2022년 적극행정(협업)·혁신 우수사례집



발 행 처  전라남도

발 행 일 2023년 6월

내용문의 T. 061-286-3322, 3323

디자인·인쇄 디자인 숲

도전을 밝히는
변화의 발걸음